

2007년 제1회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결과 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252-000058-01

2007년 제1회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결과보고서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수행한 “2007년 제1회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인도네시아 밀알한글학교
사업책임자 안영란

목 차

환영인사	1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2
연수회 일정	3
연수회 개회식	5
강의 프로그램	
- 한국의 언어 예절 : 김문오 (국립국어원)	7
-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조태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21
-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김문오 (국립국어원)	41
- 언어로 본 한국 문화: 조태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57
한글학교 현황	85
- 수라바야 토요 한글학교	
- 스마랑 한글학교	
- 파푸아 한글학교	
- 반둥 한글학교	
- 발리 한글학교	
- 밀알 한글학교(땅그랑)	
- 밀알 한글학교(찌까랑)	
- 자카르타 한글학교	
연수회 참가자 명단	96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원 참가자 명단	97
후원자 명단	97
연수 강사 명단	97

환 영 인 사

안 영 란(KOWIN 인니지회 회장, 밀알한글학교장)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되어오던 한글학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연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만사 제쳐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글학교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후원해 주신 국립국어원과 재외동포재단, 기부금과 자원 봉사로서 성심껏 참여해 주신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교수법의 개선, 교재의 통일, 정보공유 등 서로 협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각 대학에는 놀랄 정도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동아리들이 있고 배우려는 열의도 높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시스템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공연을 준비하여 주신 음악협회 및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여러분과 연수 마지막 날 한글학교 교사를 모두 초청하여 기업 방문을 허락하여 주신 P.T KMK와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3일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1. 행사 개요

(1) 목적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인도네시아 각 지역 한글학교 교육자들에게 한민족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며 한국어 교수 능력 향상, 인도네시아 각 지역 한글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교육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사내용

행사명 :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주 관 : KOWIN · 밀알 한글학교

후 원 : 국립국어원

참 가 : 인니 8지역 10개 한글학교 교사 참가

(3) 개최 일시 : 2007년 4월 23일(월) - 25일(수) 2박3일

(4) 장소 : 호텔 술탄 (021)573-8011

(5) 규모 : 각 지역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대표	16명
연수교사	4명
자카르타, 반둥지역 교사	30명
KOWIN 인니지회 회원 참가	20명
총	70명

(6) 참석자 현황

- ① 밀알한글학교 교사 전원참석
- ② KOWIN 인도네시아지회 회원 참석
- ③ 지역교민 대표
- ④ 인도네시아 각 지역 8개 학교 한글학교 교사 대표
(수라바야, 족자, 바탐, 발리, 스마랑, 반둥, 파푸아, 자카르타)
- ⑥ 현지 한인 진출기업 대표
- ⑦ 연수강사
- ⑧ 대사관
- ⑨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장
- ⑩ 한인회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4월 23일 (월) 사회 : 이순재		
14:00-16:00	등록 (등록 데스크, 명찰 준비)	
16:00-17:30	각 지역 한글학교 현황 발표 참석 :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 대표	SULTAN ASEAN ROOM
18:00-18:30	1) 개회사 2) 애국가 제창 1절 3) 환영인사 (KOWIN회장, 밀알 한글학교장) 4) 축사-국립국어원 (김문오), 내빈 중 5) 참석자 소개 6) 참가선물 증정-각 한글학교 대표	SULTAN ASEAN ROOM
18:30-19:30	기조 강연 - 김공섭 교수 <제목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방향>	SULTAN ASEAN ROOM
19:30-20:10	사진 촬영 저녁 식사	SULTAN ASEAN ROOM
20:10-20:40	친교의 시간 1) 독창 (김영희) 피아노(우경희) 2) 해금연주(조옥선)피아노(우경희) 3) 사물놀이 JIKS 사물놀이반	SULTAN ASEAN ROOM
20:40	폐회	SULTAN ASEAN ROOM
4월 24일 (화) 사회 : 손은희		
07:30-08:30	아침식사	
09:00-10:00	강의 : 김문오 <제목 : 한국의 언어 예절>	SULTAN ASEAH ROOM
10:00-10:20	휴식	

일 시	내 용	장 소
10:20-11:20	강의 : 조태린 <제목 :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SULTAN ASEAN ROOM
11:20-11:40	휴식	
11:40-12:40	한국어 교육의 현장 (진행 : 김공섭)	SULTAN ASEAN ROOM
12:40-13:40	점심식사	
13:40-14:20	새천년 건강 체조 (유경희)	SULTAN ASEAN ROOM
14:20-14:40	휴식	
14:40-15:40	강의 : 김문오 <제목 :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SULTAN ASEAN ROOM
15:40-16:00	휴식	
16:00-16:30	교실수업 모델 (안영란)	SULTAN ASEAN ROOM
16:30-16:40	휴식	
16:40-17:40	강의 : 조태린 <제목 : 언어로 본 한국 문화>	SULTAN ASEAN ROOM
18:30-19:30	저녁식사	한식당
4월 25일 (수)		
07:30-8:30	아침식사	
09:00-12:00	한인 기업체 방문 (인솔 : 채영애)	SULTAN ASEAN ROOM
12:00-12:30	폐회식 (설문지 제출)	
12:30	점심, 해산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개회식

일시 및 장소: 2007년 4월 23일

시간 : 18시 HOTEL SULTAN

제1부 개회식 (18:00~18:30)

- 개회사
- 애국가 제창 1절
- 환영인사
- 축사
- 참석자 소개

제2부 기조 강연 및 저녁 식사 (18:30~20:10)

- 기조 강연 (김공섭 교수)
제목: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방향
- 사진촬영
- 저녁식사

제3부 친교의 시간(20:10~20:40)

- 독창(김영희) 피아노(우경희)
- 해금연주 (조옥선) 피아노(우경희)
- 사물놀이 JIKS 사물놀이반

한국의 언어 예절

김 문 오(국립국어원)

1. 말은 교양의 거울¹⁾

언어 예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교양, 마음씨, 인격을 알 수 있다. 예의 바른 언어는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바르고 공손한 말을 쓰는 사람은 품위 있게 보인다. 반면에 예의 바른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호감을 얻기 어렵고 사람됨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어렵다.

가. 대화의 기본은 평등이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면, 상대방에게 호감과 안정감을 준다. 또 자세를 바로 하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명령형보다는 의뢰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버스, 기차 등에서) 좀 비켜 주세요(명령형) → 좀 비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의뢰형))

그리고 자신보다 신분이 낮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공손히 말한다면 자신의 품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나. 대화에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

대화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경우에는 말음을 정확히 하고 천천히 표준말을 써서 말해야 한다.

다. 대화에는 '1·2·3 법칙'이 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 말은 2분(또는 2배) 이상 들어 주며, 맞장구치는 데 3분(또는 3배)을 쓸 줄 아는 '1·2·3 법칙'에 충실하게 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여 준다'고 생각하게 되며 신뢰를 쌓게 될 것이다.

라. 화제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은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후 공통된 화제를 선택해야 한다. 대화 주제로 정치, 종교, 사생활에 관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며,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을 자랑스럽게 늘어 놓는 것은 금물이다.

마. 자연스러운 몸짓은 이해의 폭을 넓힌다.

말을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몸짓(제스처)은 필요하다. 다만 몸짓이 지나치거나

1)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ye365.or.kr) '사회 예절' 중 '직장 예절' 난의 주요 내용은 이 글을 작성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인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고 손가락을 모아 바르게 편 상태로 가리키는 것이 좋다.

2. 대인 언어 예절의 태도

가. 나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사장이 평사원에게 하는 말) 총무과장 어디 갔어?(×)

→ 총무과장 어디 가셨는가/어디 가셨지요?(○)

(타인 앞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말했습니다.(○)

나. 호칭어와 대우법의 관련성을 알고 써야 한다.

호칭어는 대우법(경어법, 존대법)과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 (1) [①과장님, ②김과장님] ⇒ [~하십시오]
- (2) [③김철수 씨, ④철수 씨] ⇒ [~하세요/~해요]
- (3) [⑤철수 형] ⇒ [~해요]
- (4) [⑥김 과장, ⑦김 씨, ⑧ 김 형] ⇒ [~하십시오/~하오]
- (5) [⑨김 군, ⑩김철수 군, ⑪철수 군] ⇒ [~하게]
- (6) [⑫김철수, ⑬철수, ⑭철수야] ⇒ [~해/~해라]

이상의 호칭어의 서열에 맞추어 말의 끝부분도 ‘하십시오체’부터 ‘해체/해라체’까지 다양하게 호응하게 된다.

아래 표에서 하오체(교통 표지판에서 ‘멈추시오’, ‘속도를 줄이시오’ 등)와 하게체(스승이 제자에게, 장모가 사위에게, 연만한 친구들 간에)는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으며, 나머지 네 개가 빈도 높게 사용된다. ‘하십시오체’와 ‘해라체’가 대우법의 기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며,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해요체’와 ‘해체’가 사용된다. ‘하십시오체’를 써서 극존대할 대상에게 청유형은 ‘-하십시오’가 적절하다. 이 경우 간혹 하오체에 해당하는 ‘-합시다’를 쓰기도 하는데, 이는 무례하다는 느낌을 준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하십시오체	잡습니다/잡니다 좋습니다	잡습니까?/잡니까? 좋습니까?	(어서)잡으십시오/가십시오 ×	(함께)잡으십시오/가십시오 ×
해요체	잡아요/가요 좋아요	잡아요?/가요? 좋아요?	(어서)잡아요/가요 ×	(함께)잡아요/가요 ×
하오체	잡소,잡으오/가오 좋소,(예쁘오)	잡소?,잡으오?/가오? 좋소?(예쁘오?)	(어서)잡소,잡으오/가오 ×	(함께)잡읍시다/잡시다 ×

하계체	잡네/가네	잡나?/가는가?	(어서)잡게/가게	(함께)잡으세/가세
	좋네, 좋으이	좋은가?	x	x
해체	잡아/가	잡아?/가?	(어서)잡아/가	(함께)잡아/가
	좋아	좋아?	x	x
해라체	잡는다/간다	잡느냐,잡나?/ 가느냐?가나?	(어서)잡아라/가라	(함께)잡자/가자
	좋다	좋으냐, 좋으냐?	x	x

경어 관련 어휘들은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예: 자다-**주무시다**, 주다-**드리다**, 먹다-**드시다**-**잡수시다**, 데리고 가다-**모시고 가다**, 묻다-**여쭙다**, (내) 말-(선생님) **말씀**[존대], (내) 말-(제) **말씀**[겸양], 나이-**연세**(**춘추**), 병-**병환**, 밥-**진지**, 나-**저**, 우리-**저희**, 가-**께서**, 에게-**께** 등)

다. 인사는 주고 받는 것이다.

인사를 받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동료 갑: 안녕하세요?”

“동료 을: 안녕하세요?”

“하급자: 안녕하세요?”

“상급자: “응”(x), “아 그래”(x), “안녕하네”(x),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 격식을 갖출 자리에선 언어 표현도 갖춘 형식이 필요하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자리일수록 불완전한 표현을 피하고 완전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중하고 완전하게 표현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만요” 하기보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냥 “네?”라고 되 묻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좋다.

3. 가정 내의 호칭어(부름말) 지칭어(가리킴말)

부모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있으나 장성해서는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 계신 부모를 가리켜 말할 때 ‘저의 아버님이..., 저의 어머니...’처럼 ‘님’자를 붙여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높여 말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아버님, 어머니’는 남의 부모를 높여서 말하는 호칭어(呼稱語, 부름말) 또는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指稱語, 가리킴말)로 쓰거나,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지칭어로 쓰는 말이다.

과거에는 한자어로 된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가친(家親)’은 나의 살아 계신 아버지, ‘선친(先親)’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의 살아 계신 어머니는 ‘자친(慈親)’,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先妣)’라고 한다. 이 한자 지칭어는 현대에서 많이 사라져서 잘 모르는 사

람이 많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는 등 잘못 쓰기도 한다. 또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인 ‘자당(慈堂)’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쓰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조부모에게 말할 때는 부모를 낮추어 ‘아비, 어미’라고 하였으나 현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 언어 예절은 그 시대의 감각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자녀

자녀는 당연히 이름을 부른다. 결혼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 아비(아범), ○○ 어미(어멈)’처럼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를 수 있다.

시부모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님’이다. 요즘 시아버지를 친밀하게 여겨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으로 불러야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부엌, 거실 등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아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이므로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

시조부모에게 시부모를 가리켜 말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되, ‘아버지, 어머니’라고 다소 낮추어 말해도 된다. 그러나 과거의 예법처럼 ‘아비, 어미’라고까지 하지는 않는다.

며느리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이다. 그런데 ‘애’는 친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칫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한편 며느리를 부모와 배우자에게 가리켜 말할 때는 ‘며늘애, ○○ 어미(어멈); 새아기(배우자에게만)’라고 하거나, 아들 이름을 넣어 ‘○○ 택, ○○ 처’라고 할 수 있다. ‘며느리’라는 말은 남의 며느리인 듯한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는 낮추어야 하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낮추어 부르는 말로 ‘며늘애’라고 하는 것이다. 사돈에게도 ‘며늘애, ○○ 어미’처럼 가리킨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가 없고, 또 ‘며느리’가 높이는 말이 아니므로 ‘우리 며느리’라고 말한다.

처부모

장인은 ‘장인 어른,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장모는 ‘장모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처부모도 자신의 부모처럼 친근하게 느끼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풍조가 널리 퍼져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편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남의 처부모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또 배우자에게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등으로 말하는 것은 마치 남을 가리켜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삼가야 한다.

사위

사위는 ‘○서방, 여보게’라고 부른다. 때로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남편

남편은 ‘여보’라고 부르는데, 신혼 초에는 ‘○○ 씨, 여봐요’라고 쓸 수도 있다. 당사자 앞에서 지칭할 때는 ‘당신, ○○씨[신혼초], 영감[장·노년]’이라 한다. ‘자기, 아빠, 오빠, 아저씨’ 등은 남편에 대한 호칭어로는 지칭어로는 안 쓰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신혼 초라 할지라도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가리킬 때 ‘○○ 씨’라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아이가 있으면 ‘아비, 아빤’이라고 하면 되고, 아이가 없을 경우 ‘이이, 그이, 저이’로 부르면 된다.

아내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는데, 신혼 초에는 ‘○○ 씨, 여봐요’라고 쓸 수도 있다. 당사자 앞에서 지칭할 때는 ‘당신, ○○씨[신혼초], 임자[장·노년]’이라 한다. 적지 않은 경우 ‘○○야, 야, 이봐’ 등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데 이는 좋지 않다. 또 ‘자기, 와이프’로 가리키기도 하는데, 역시 써서는 안 될 말이다.

부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 어미(어멈)’이라고 하고 아이가 없으면 ‘그 사람’으로 쓴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야 하므로, 아내를 별로 낮추는 느낌이 없는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 ○○[이름]’라고까지 낮추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처부모에게는 아내를 낮출 필요가 없어 ‘○○ 어미(어멈), 그 사람’뿐만 아니라 ‘○○ 엄마,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 항렬들(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인 형수, 제수, 매부 등)에게는 ‘○○엄마, 집사람, 안사람’으로 가리키고, 특히 손위의 동기(형, 누나 등)인 경우 ‘처’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잘 모르는 타인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라고 한다.

형과 그 아내

형은 ‘형(님)’으로 부른다. 형의 아내는 ‘형수님, 아주머님’이라고 부른다.

남동생과 그 아내(남자의 경우)

남동생은 ‘○○(이름), 아우, 동생’으로 부른다.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이름 부르는 것은 삼가고 대우를 해 주는 것(예: 면전에서 “아우 자네도 …”, 자기 자녀에게 “작은아버지 어디 가셨니?”)이 전통적인 예절이다. 그 아내는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라고 부른다.

누나와 남편

누나를 부르는 말은 ‘누나, 누님’이다. 그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이라 부른다. ‘매부’는 여동생의 남편도 가리키는 말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妹’가 손아래 누이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누나의 남편에 대해 ‘매부, 매형’이라 할 수 없고 ‘자형(姊兄)’으로 써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써온 말은 ‘매부, 매형’이고 오히려 ‘자형’은 쓰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자형’이 많은 세력을 얻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여동생과 그 남편(남자의 경우)

여동생은 ‘○○(이름), 동생’으로 부른다. 그 남편은 ‘매부, ○ 서방’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지칭어로서는 그 외에 매제(妹弟), 계매(季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표준화법에서 권장하는 지칭어로 채택되지 않았다.

오빠와 그 아내

오빠를 부르는 말은 ‘오빠, 오라버니(님)’이다. 그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그렇게 부른다.

남동생과 그 아내(여자의 경우)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그 아내는 ‘올케’라고 부른다.

언니와 그 남편

언니를 부르는 말은 ‘언니’이다. 그 남편은 ‘형부’라고 부른다.

여동생과 그 남편(여자의 경우)

여동생은 ‘○○(이름), 동생’으로 부른다. 그 남편은 ‘○서방’(님)으로 부른다. 나이가 더 많을 경우 ‘서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서방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이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 ‘형부(兄夫)’에 대립시켜서 ‘제부(弟夫)’라는 말을 호칭어 및 지칭어로 쓰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방’이라고 지칭해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생의 남편’으로 가리키면 된다.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으로 부른다. 그 아내는 ‘형님’으로 부른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불러야 하며 존댓말을 써야 한다. 여자의 서열은 시댁의 남편들의 서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남편의 아우와 그 배우자

남편의 아우는 미혼인 경우 ‘도련님’으로 부르고, 기혼인 경우 ‘서방님’으로 부른다. 아우가 여럿일 때는 ‘○째 도련님, ○째 서방님’처럼 부를 수 있다. 그 아내는 ‘동서’라고 부른다.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기대어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전통적인 직접 호칭어가 있을 경우 ‘삼촌, 고모, 큰엄마...’ 등의 간접 호칭어를 써서는 안 된다. 또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을 ‘형님’으로 부르고 존대해 주더라도 자신도 손아래 동서에게 ‘동서’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여야지 하대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른다. 남편 누나의 남편, 곧 손위시누이의 남편은 ‘아주버님, 서방님’으로 부른다. 원래 며느리와 시누이의 남편은 내외하는 관계여서 그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로 만날 일도 많아 호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주버님’은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과 같으므로 ‘손위 시누

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적당하여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서방님' 역시 일부 사대부 집에서 '운니동 서방님, 김 서방님'처럼 시누이의 남편(손위든지, 손아래든지 무관)을 가리켜 쓰던 말이어서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남편의 누이동생과 그 배우자

남편의 누이동생은 '아가씨, 아기씨'라고 부른다. 당사자가 어리거나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배우자(손아래 시누이의 남편)는 '서방님'으로 부른다. '서방님'은 손위 시누이의 남편과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두루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아내의 남자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이다. 아내의 오빠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 부르고, 나이가 적으면 '처남'이라 부른다. 아내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말은 '처남'이다.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손아래 처남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다고 해서 '형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아내의 오빠의 아내(손위 처남의 댁)를 호칭하는 말은 '아주머니'이다. 당사자와 남에게 가리켜 말할 때는 '처남의 댁' 등으로 한다.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손아래 처남의 댁)를 호칭하는 말은 '처남의 댁'이다.

처남의 댁은 시누이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호칭어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시속이 변하면서 호칭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댁'하는 것은 '충주댁, 안성댁' 하듯이 다소 낮추는 느낌이 있어 '처남의 댁'이라는 호칭어가 손위 처남의 부인에게는 적당치 않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 쓰는 '아주머니'는 숙모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므로 당사자 외 남에게 가리킬 때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지칭할 때는 '처남의 댁'으로 한다.

아내의 여자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언니는 '처형'으로 부른다.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고 부른다. 아내 언니의 남편, 곧 손위 동서는 '형님'이라 부른다. 다만 손위 동서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에는 '형님'이라 하지 않고 '동서'라고 한다. 남자들의 서열에서 아무리 손위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 곧 손아래 동서는 '동서, ○서방'이라고 부른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면 '동서'라고 한다. 나이가 많더라도 서열상 손아래이므로 '형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손아래이긴 해도 나이가 많으므로 '○ 서방'처럼 낮추어 말해서도 안 된다.

숙질 사이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지방에 따라서 만형만 '큰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한다. 한자어로 '백부(伯父)'(아버지의 만형만)라고도 하나 지칭어로는 가능하지만 호칭어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 형의 아내는 '큰어머니'라고 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고, 결혼한 뒤에는 '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삼촌'('외삼촌'도 사정은 같음)은 촌수이므로 원칙상 호칭어나 지칭어로 적당치 않으나 전국적인 범위에서 굳어진 지 오래되므로 표준으로 삼았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어와 지칭어는 마찬가지다. 경어법상으로는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다섯 살 이상 연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으로 연상이면 향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해야 한다. 장조카인 경우에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그 배우자는 ‘고모부, 아저씨’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아주머니’라고 하고 그 배우자는 ‘이모부, 아저씨’라고 한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 배우자는 ‘외숙모, 아주머니’라고 한다. 자신의 외삼촌을 자녀들에게 지칭할 때[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陣外家)이므로] ‘진외종조부[陳外從祖父](님)’이라고 한다. 또 아버지의 외삼촌은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뻘이 되므로 ‘진외할아버지’라는 말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조카(①형제자매의 아들, ②형제자매의 자식)나 조카딸(형제자매의 딸)은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또는 ‘○○ 아비(아범), ○○어미(어멈)’로 쓴다.

조카의 아내(조카며느리. =질부(姪婦))는 며느리 부르듯 ‘아가, 새아가, ○○어미, ○○어멈’으로 부르고 조카딸의 남편(조카사위. =질서(姪壻))도 사위 부르듯 ‘○ 서방, ○○ 아범, ○○아비’로 부른다. 누이의 자녀(누나·언니·여동생의 자식)를 부를 때는 친조카와 같으나,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친조카(친형·친오빠·친남동생의 자식)와 구분하기 위해, ‘생질’(甥姪, 누이의 아들), ‘생질녀’(甥姪女, 누이의 딸)와 같은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하여 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돈 사이

【같은 향렬】 발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돈 어른’(나이가 위일 때 더 적절) 또는 ‘사돈’(나이가 아래이거나 친밀할 때 더 적절)이라고 하고, 안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부인’이라고 한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부인(나이가 위일 때 더 적절), 사돈(나이가 아래이거나 친밀할 때 더 적절)’이라고 하고, 발사돈을 부르는 경우는 ‘사돈 어른’(나이차가 많거나 친밀한 경우에는 ‘발사돈’을 쓸 수도 있음)이라고 한다. 형수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를 부를 경우, 남자는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여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등으로 부른다.

【위 향렬】 며느리·사위의 조부모를 부르는 말은 ‘사장(査丈)어른’이다. 할머니를 구별하여 ‘안사장 어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래 향렬】 며느리·사위의 동기와 그 배우자, 조카 등 아래 향렬의 사람을 부를 경우, 남자는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여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등으로 부른다.

4. 직장과의 호칭어(부름말)와 지칭어(가리킴말)

가. 동료, 선배, 상사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1) 내가 동료, 선배,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기준	상대	직함 없는 남자	직함 없는 여자	직함 있는 남자	직함 있는 여자
나	동료	김철수 씨, 철수 씨	박영희 씨, 영희 씨	김 계장	박 계장
나	선배나 나이 많은 동료	선배님, 김 선배(님), 김철수 선배님, 선생님, 김 선생님, 김철수 선생님	선배님, 박 선배(님), 박영희 선배님, 선생님, 박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박 여사(님), 박영희 여사(님)	김 계장님, 김철수 계장님,	박 계장님, 박영희 계장님,
나	상사	×	×	김 계장님, 김철수 계장님,	박 계장님, 박영희 계장님,

2) 상사가 부하 직원(나이, 직함, 성별을 고려할 경우)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기준	상대	직함 없는 남자	직함 없는 여자	직함 있는 남자	직함 있는 여자
상사	보통의 부하 직원	동수야(×), 곽 씨(×), 곽 군(×), 미스터 곽(×), 동수 씨(○), 곽동수 씨(○)	숙희야(×), 이 양(×), 미스 이(×), 숙희 씨(○), 이숙희 씨(○)	곽 계장	이 계장
상사	나이 많은 부하 직원	곽 선생(님), 곽동수 선생(님)	이 선생(님), 이숙희 선생(님), 이 여사, 이숙희 여사	곽 계장님	이 계장님

나. 직장 사람들의 배우자, 배우자의 동성 친구에 대한 호칭 · 지칭

1) 남성 쪽에서 여성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남성인 내가 직장 사람들의 배우자나 아내의 동성(同性)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기준	상대	호칭	지칭
나 (男)	친구의 아내	아주머니, (박)영희 씨, 훈이 어머니 , 부인(夫人), 박 여사, 박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제수씨(×), 계수씨(×)	영희 씨, 훈이 어머니 , 자네 부인 , 자네 합부인(閤夫人), 자네 와이프(×), 제수씨(×), 계수씨(×)
나 (男)	아내의 여자 친구	아주머니, (박)영희 씨, 훈이 어머니 , 박 선생(님), 박 여사, 박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박)영희 씨, 훈이 어머니 , 박 선생, 박 여사, 박 과장[직함 있는 경우]
나 (男)	동료나 아랫 사람의 아내	아주머니, 아주머님, 부인(夫人), (박)영희 씨, 훈이 어머니 , 박 선생, 박 여사, 박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아주머니, 아주머님, 부인(夫人), (박)영희 씨, 훈이 어머니 , 박 선생, 박 여사, 박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나 (男)	상사의 아내	사모님 , 아주머님	사모님 , 아주머님

2) 여성 쪽에서 남성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여성인 내가 직장 사람들의 배우자나 남편의 동성(同性)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기준	상대	호칭	지칭
나 (女)	친구의 남편	(김)철수 씨, 훈이 아버지 , 김 선생님(님), 김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김)철수 씨, 훈이 아버지 , 바깥양반 , 부군(夫君), 김 선생님(님), 김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나 (女)	남편의 남자 친구	(김)철수 씨, 훈이 아버지 , 김 선생님(님), 김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김)철수 씨, 훈이 아버지 , 바깥양반 , 김 선생님(님), 김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나 (女)	동료·아랫 사람의 남편	(김)철수 씨, 훈이 아버지 , 김 선생님(님), 김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김)철수 씨, 훈이 아버지 , 바깥양반 , 부군(夫君), 김 선생님(님), 부군(夫君) 김 과장(님)[직함 있는 경우]
나 (女)	상사의 남편	김 선생님, (김철수) 선생님	바깥어른

5. 전화 예절

전화를 받을 때의 말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표준이며, ‘여보세요’ 다음에 잠깐 틈을 두고 ‘안국동입니다’, ‘성산 시영아파트입니다’ 등과 같이 지역이나 아파트 이름을 넣어 말하는 것도 좋다. 직장에서 받을 때는 “네, ○○ 주식회사입니다”하고 받으면 무난하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에는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여쭙까요)?”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찾은 사람이 없으면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친절하게 답하면 된다. 특히 직장에서는 간결하고 친절한 말씨여야 한다.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는 느낌이 들어 전화 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다.

전화를 걸 때의 말

집에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입니다. ○○○ 씨 계십니까?”와 같이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 친구 ○○입니다. ○○○있습니까?”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예의이다. 만약 상대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택입니까?”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 걸 때도 집에 걸 때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인데, ○○○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와 같이 말하면 된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미안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이 말하면 된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귀찮은 듯이 전화기를 탁 놓지 말고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를 하고 놓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들어주세요”라는 인사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만 주로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6. 소개할 때

가. 일반적인 소개

중간에서 다음 사람을 소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1)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 2) 손아래 사람을 순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 3)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는 1), 2), 3)의 순서로 적용한다. “저의 어머니입니다.”처럼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하고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소개하여야 한다.

나. 부모님, 스승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저희 아버지 함자(衡字)가 길자[-짜] 동자[-짜]입니다.”

“저희 선생님 성함이 임, 성자[-짜] 길자[-짜]입니다.”

[주의] 성(姓)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다.

7. 압존법(壓尊法)과 사회 생활

가. 가정 언어 예절에서

가정 언어 예절에서, 높여야 할 어른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높이지 않는 언어 예절(=압존법)이 있다.

- 1) 조부모 앞에서, 부모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등을 언급할 때에 존대 여부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장에 간 아버지가 옵니다.(○)

그러나 압존을 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예도 교육적 차원에서 옳은 것으로 허용된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

할아버지, 장에 간 아버지가 오십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

2) 타인 앞에서, 남편과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등을 언급할 때 존대 여부

[사례 소개] 한번은 남편 회사의 상사가 전화했는데, 마침 남편이 집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로 해야 할지, “지금 집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난처했다.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술어 ‘-시-’를 넣어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남편의 친구나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시-’를 안 넣는 것이 좋다.

(예) “아, 김 과장님이세요? 훈이 아빠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담배 사러 나왔습니다.”

나. 직장 언어 예절에서

더 높은 상사 앞에서 덜 높은 상사를 언급할 때 존대 여부: 가정과 달리, 직장에서는 더 높은 분 앞에서 그보다 덜 높은 분을 높이지 않는 압존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는 더 높은 상사 앞에서 그보다 덜 높은 상사를 가리켜 말할 때에도 항상 존대를 하여야 한다.

직장에서 철저하게 압존법을 쓰는 것은 일본식 언어 예절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언어 예절과는 거리가 있다.

(예) 과장님, 계장이 옵니다.(×) → 과장님, 계장님이 오십니다.(○)

과장님, (이것) 계장에게 갖다 줄까요?(×) → 과장님, (이것) 계장님께 갖다 드릴까요?(○)

다만, 더 높은 상사 앞에서 그보다 덜 높은 상사에 대해 말할 때, 극존대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예) 과장님, 계장님께서 오십니다.(×) → 과장님, 계장님이 오십니다(○)

8. 편지 쓰는 법

편지 쓸 때 주의해야 할 형식적 요건으로 서두, 서명란, 봉투쓰기가 있다. 서두는 ‘아버님 보(시)옵소서, (○○○) 선생님께 올립니다, ○○○님께[공적인 편지], ○○○ 선생께, ○○에게, ○○ 보아라, ○○ 주식회사 귀중’ 등처럼 쓴다. ‘○○○ 님’의 ‘님’은 원래 고유명사 뒤에 붙는 말이 아니지만 널리 쓰이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명란은 ‘○○○ 올림, ○○○ 드림’이 표준이다. 아랫사람에게는 ‘○○썸’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안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성(姓)을 쓰지 않고 ‘○○ 올립니다, ○○ 드림’처럼 쓴다. 참고로 ‘○○로부터’라는 것은 외국어의 직역이므로 쓰지 않도록 한다. 주의할 것은 직함을 넣을 때이다. 예를 들어 ‘○○ 주식회사 사장 ○○○ 올림’이라고 해야지, ‘○○○ 사장 올림’처럼 이름 뒤에 직함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에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

봉투를 쓸 때는 ‘○○○+직함+님(께), ○○○좌하, ○○○ 귀하, ○○○ 님(에게), ○○ 주식회사 ○○○ 사장님, ○○ 주식회사 ○○○ 귀하’ 등처럼 쓴다. 주의할 것은 직함 뒤에 다시 ‘귀하’나 ‘좌하(座下)’ 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장님 귀하’는 바르지 못한 보기이다(→ ○○○ 사장님께, ○○○ 귀하). 예의가 지나쳐 오히려 비례(非禮)가 된 것이다.

9. 특정한 때의 인사말

가. 새해 인사

새해 인사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은 집안, 이웃, 학교 등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인사말이다.

세배할 때는 절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공손히 절만 하면 그것으로 인사를 다 한 것이며 어른의 덕담이 있기를 기다리면 된다.

한편 절하겠다는 뜻으로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말이고 명령조여서 예의가 아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어른이 자리에 앉으시면 말없이 그냥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나이 차가 많지 않아 상대방이 절 받기를 사양하면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덕담은 이른바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어른의 덕담이 있는 뒤에 “과세(過歲) 안녕하십니까?”와 같이 말로 인사를 한다. 이때 특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늙었나?’라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등산 많이 하세요”와 같이 기원을 담은 인사말이 좋다.

나. 문 상

문상 가서 가장 예의에 맞는 인사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인사말을 해야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부모상일 경우)”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다. 봉투 및 단자의 인사말

회갑 잔치, 결혼 잔치 등에서 축의금을 낼 경우 봉투의 앞면에 ‘祝 壽宴(축 수연), ‘祝 華婚(축 화혼)’과 같이 쓰고 뒷면에 이름을 쓴다. 한글로 써도 무방하며 가로쓰기를 할 수도 있다. ‘수연(壽宴, 壽筵)’은 회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생일 잔치에 두루 쓸 수 있는 말이다.

한편 단자(單子: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는 반드시 넣는 것이 예의이다. 단자에는 봉투의 인사말을 써도 되고 “수연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와 같이 문장으로 인사말을 써도 된다. 그리고 “금 ○○○원”처럼 물목을 적은 다음 날짜와 이름을 쓴다.

결혼식에는 “祝 婚姻(축 혼인), 祝 結婚(축 결혼), 祝 華婚(축 화혼), 祝 儀(축의), 賀 意(하의)” 등을 인사말로 쓸 수 있다.

문상의 경우 봉투의 인사말은 “賻 儀(부의), 謹 弔(근조)” 등을 쓴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문장 형식의 인사말은 단자에는 써도 봉투에는 대개 쓰지 않는다. 생일, 결혼, 문상 등 정형화된 단어의 인사말이 있는 경우 문장으로는 봉투의 인사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정년 퇴임의 경우 봉투나 단자의 인사말로 ‘權 祝(근축), 頌 功(송공), (그동안의) 공적을 기립니다’처럼 쓸 수 있다. 병문안의 위로금을 건넬 경우에는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로 쓴다. 정년 퇴임이나 병문안의 경우처럼 단어의 인사말이 그리 보편화되지 못한 경우 봉투에도 문장의 인

사말을 쓸 수 있다. 출판 기념회 등 마땅한 인사말이 없을 경우 이와 같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인사말을 쓰면 된다.

10. 주의 사항 몇 가지

가. ‘식사하셨어요?’의 문제

과장님, 식사하셨어요?(×)→과장님, 점심 잡수셨습니까/드셨습니까?(○)
(??)과장님, 진지 잡수셨습니까/드셨습니까?(△)

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의 문제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저희 나라’의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희 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

[대조] 미국은 저희 나라(=자기네 나라) 국민의 안전은 끔찍이도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ye365.or.kr) ‘사회 예절’ 중 ‘직장 예절’ 난
국립국어연구원(1991), 『**국어의 표준 화법 (시안)**』, 담당 연구원: 김세중, 김연순, 이근용.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 화법 해설**』, 담당 연구원: 김연순.
김양호·조동춘(1988), 『**5분 연설 10분 대화**』, 도서출판 시몬.
이응백·이주행(1992),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효과적인 화법의 비결---**』, (주)현대문학 발행,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인쇄.
이익섭·이상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 『**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사 출판국.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조 태 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한글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의 원리

우리는 (1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1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 (1) ㄱ.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요
- ㄴ. 꾀니피 바라메 혼날리고 이썬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1ㄱ)과 (1ㄴ)은 차이가 없다. (1ㄱ)을 읽어 본 후에 (1ㄴ)을 읽어 보면 둘 다 [꾀니피 바라메 혼날리고 이썬요]로 소리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맞춤법을 규정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소리대로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다는 뜻이다. [돌]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돌’로 적고 [눈물]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눈물’, [꿈]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꿈’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대로 적을 경우 쓰기는 쉬워도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꽃’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꼬치 아름답따], [꼰또 아름답따], [꼰만 아름답따]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자.

- (2) ㄱ. 꼬치
- ㄴ. 꼰또
- ㄷ. 꼰만

위의 밑줄 친 말은 모두 ‘꽃’이라는 명사에 조사 ‘이, 도, 만’이 결합한 말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가 무척 어렵다. 글을 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 이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표기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꼴또, 꼴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의 형태를 고정해서 ‘꽃이, 꽃도, 꽃만’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ㄱ. 꽃이
 ㄴ. 꽃도
 ㄷ. 꽃만

위와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출],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꼴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꼬치], [꼬출], [꼴만]의 경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을’, ‘꽃만’으로 적는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ㄱ. 아름답-고
 ㄴ. 아름답-다
 ㄷ. 아름답-지

‘아름답고, 아름답다, 아름답지’를 보면 ‘아름답-’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될 경우에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워’와 같이 적는다.

- (5) ㄱ. 아름답은(←*아름답-은)
 ㄴ. 아름다워(←*아름답-어)

‘꽃이’와 ‘꽃만’은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이, 꽃만’은 ‘꼬치, 꼴만’으로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꼬치]와 [꼴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운], [아름다워]로 소리 나지 않고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적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을 수 없다.

2. ‘한글 맞춤법’의 실제

한번 정해진 표기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본딧말에서 말이 줄어들어 준말이 되는 경우에도 표기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 (1) ㄱ. 게 섯거라(←서 있거라)
- ㄴ. 엿다(←여기 있다)
- ㄷ. 발다리, 발벽, 발사돈(←바깥)
- ㄹ. 오늘은 웬지(←왜인지) 기분이 좋아.

‘게 섯거라’를 ‘*게 섯거라’로 적지 않는 것은 ‘섯거라’가 ‘서 있거라’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있-’의 받침을 그대로 유지한다. ‘엿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 있다’의 받침 ‘ㅌ’으로 적는다. ‘발다리, 발벽, 발사돈’의 ‘발’은 ‘바깥’에서 온 말이므로 받침을 ‘ㅌ’으로 적는다. ‘웬지’와 ‘*웬지’를 구별하는 것도 본딧말의 표기와 관련이 있다.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웬지’로 일관되게 적는다. “웬 낯선 사람이 찾아 왔던데?”와 같은 경우는 ‘왜’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반듯이’와 ‘반드시’를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을 반듯하게 굿다’의 뜻으로 ‘반드시’를 쓰지 않고 ‘반듯이’를 쓰는 것은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둘 다 ‘반듯-’에서 나온 말이다.

- (2) ㄱ. 금을 반듯이(←반듯하게) 그어라.
- ㄴ. 오늘 반드시(←반듯하게) 끝내라.

‘반드시’는 ‘반듯하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의 ‘지긋이, 지그시’에서도 볼 수 있다.

- (3) ㄱ. 나이가 지긋이(←지긋하게) 든 반백의 신사.
- ㄴ. 눈을 지그시(←지긋하게) 감았다.

‘일찍이, 더욱이’를 ‘*일찌기, *더우기’로 적지 않는 것도 ‘일찍, 더욱’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4) ㄱ. 일찍이(*일찌기) 문명을 꽃피운 우리나라.
- ㄴ. 비도 내리고 더욱이(*더우기) 바람도 세다.

그렇지만 표기의 일관성을 지키면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칠다, 거칠고, 거칠어’에서는 ‘거칠-’로 일관되게 적을 수 있지만 ‘-은’이 연결될 경우에는 ‘거친’이 되므로 ‘*거칠은’으로 적을 수 없다.

- (5)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ㄴ. 멀리 날아가는(*날라가는) 비행기
 ㄷ. 거친(*거칠은) 별판에 푸른 솔잎처럼
 ㄹ. 놀이터에서 노는(*놀으는) 아이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라고 할 때의 ‘며칠’ 또한 ‘몇 년, 몇 월’과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몇 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몇 월’이 [며월]로 소리 나듯이 ‘*몇 일’은 [며딜]로 소리 나기 때문에 ‘*몇 일’로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며칠’로 적는다.

- (6)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몇 일)이지?

이와는 달리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표기의 일관성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면서 소리가 달라졌지만 원래의 모양대로 적은 경우이다.

- (7) ㄱ. 눈에 눈곱(*눈뿔)이 끼었어.
 ㄴ. 눈살(*눈쌀)을 찌푸린다.

‘눈곱’은 [눈뿔]으로 소리 나고 ‘눈살’은 [눈쌀]로 소리 나지만 ‘곱’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눈뿔’, ‘*눈쌀’로 적을 경우 두 말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눈곱’, ‘눈살’로 일관되게 적는다.

잘못된 말을 쓰기 때문에 한글로도 잘못 적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 나무로는 탁자를 □□이 좋겠다.”의 □□에 알맞은 말을 ‘만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만드미]라고 잘못 읽어서 적을 때도 ‘만듬이’로 잘못 적는 일이 많다. [만들미]로 올바르게 읽는 경우에는 대부분 ‘만듬이’로 적는다.

- (8) ㄱ. 이 나무로는 의자를 만듬이(*만듬이) 좋겠다.
 ㄴ. 서울에서 3년간 삶(*살음).

국어에서 명사형을 만들 때 ‘-ㅁ/음’이 연결되는데 받침이 ‘ㄹ’인 말일 때는 ‘살--+ㅁ→삶’처럼 ‘ㅁ’이 된다. 명사형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다. 흔히 ‘있다, 없다’의 ‘있-, 없-’을 명사형으로 만들 때 잘못 적는 일이 적지 않다.

- (9) ㄱ. 철수는 서울에 있음(*있슴).
 ㄴ. 오늘은 보리밥을 먹음(*먹슴).

‘있음’을 ‘*있슴’으로, ‘없음’을 ‘*없슴’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은데 ‘있--+음’, ‘없--+음’이므로 ‘있음’과

‘없음’이 옳다. 이러한 혼란은 ‘있음’과 ‘*있슴’이 소리가 같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므로 ‘떡-’의 경우에 ‘떡음’이 맞고 ‘*떡슴’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있습니다’와 ‘있습니다’를 혼동하는 경우에도 ‘떡습니다’를 ‘*떡읍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있습니다’가 맞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국어의 동사나 형용사에 여러 가지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모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 (10) ㄱ. 막-아, 볶-아, 얹-아
 ㄴ. 떡-어, 죽-어, 빨-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막-, 볶-, 얹-’처럼 ‘아, 오, 야’가 들어 있는 말 뒤에는 ‘-아’가 연결되어 ‘막아, 볶아, 얹아’가 되고 ‘떡-’처럼 그 외의 모음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어’가 연결된다. 따라서 “철수는 잠깐 남어라.”의 ‘*남어라’는 ‘남아라’로 고쳐야 옳고 “침을 빨았다.”의 ‘*빨았다’는 ‘빨었다’로 고쳐야 옳다.

또한 특정한 어미가 연결될 때 전체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 (11) ㄱ. 잠그-다, 잠-가, 잠그-니/ 담그-다, 담-가, 담그-니
 ㄴ. 머무르-다, 머물러/ 들르-다, 들러

‘잠그-’는 ‘-어’가 연결되면 ‘잠가’로 모양이 바뀐다. ‘담그-’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체 모양이 바뀌는 경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물을 잠궜다.”의 ‘*잠궜다’는 ‘잠가라’로 고쳐야 옳고 “바닷물에 손을 담궜다.”의 ‘*담궜다’는 ‘담궜다’로 고쳐야 옳다. ‘머무르-’는 ‘-어’가 연결되면 ‘머물러’가 되고 ‘들르-’는 ‘들러’가 된다.

한편, ‘사귀어’와 ‘바뀌어’와 같이 ‘기+어’가 되는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흔히 ‘*사겨’, ‘*바껴’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사겨’는 ‘사귀어’가 준 말이고 ‘*바껴’는 ‘바뀌어’가 준 말로 ‘사귀어’, ‘바뀌어’와 관계가 없다.

- (12) ㄱ. 너희 둘이 사귀어(*사겨) 보면 어떨까?
 ㄴ. 내 것과 네 것이 바뀌어(*바졌어).

한편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된다. ‘되+-었다→됐다’, ‘되+-어서→돼서’가 그러한 경우다. ‘되라’와 ‘돼라’는 둘 다 가능하다. ‘되라’는 ‘되-’에 간접적, 문어적 명령을 나타내는 ‘-으라’가 연결된 말이고 ‘돼라’는 직접적, 구어적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가 연결된 말이다.

- (13) ㄱ. 철수는 고등학생이 됐다(←되었다).
 ㄴ. 자식이 돼서(←되어서) 그제 할 소리냐?
 ㄷ. 저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요(←되어요).
 ㄹ. 다음 물음에 올바른 답을 쓰라/써라.

실제 국어 생활에서 혼동이 되는 말 중에는 소리가 같아져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예들이 있다. 이러한 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래의 예는 국어에서 ‘요’와 ‘-오’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 (14) ㄱ. 무엇을 할까요.
 ㄴ. 말씀 낫추십시오(*요).

국어에서 ‘요’는 말이 끝난 다음에 덧붙어서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무엇을 할까’에 ‘요’가 덧붙으면 ‘할까요’가 된다. 그런 까닭에 ‘할까요’에서 ‘요’가 빠져서 ‘할까’가 되더라도 문장이 성립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오’는 빠질 경우 ‘*말씀 낫추십시-’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와는 다르다. ‘이리 오시오’, ‘무엇 하오’에서도 ‘오’를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의 이러한 특성은 ‘예’에 상대되는 말이 ‘아니오’인지 ‘아니요’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예’의 낮춤말 ‘응’에 상대되는 짝은 ‘아니’이다. 여기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요’가 붙어서 ‘아니요’가 되었다고 설명하면 ‘응, 아니’와 ‘예, 아니요’가 등급의 차이를 두고 서로 짝을 맞춰 존재하는 현상을 적절하게 보여 줄 수 있다.

- (15) ㄱ. 다음 물음에 예, 아니요(*아니오)로 답하십시오.
 ㄴ. 아니요(*아니오)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ㄷ. 나는 의사가 아니오.

‘아니오’는 ‘나는 의사가 아니오’,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오’와 같이 ‘아니-’에 ‘-오’가 붙은 서술어이다. 한편 아래의 ‘-요’는 서술격조사 ‘이-’ 다음에 나타나서 문장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고>이오>이요’의 과정을 겪어서 생긴 말로 위에서 다룬 ‘요’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 (16)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ㄷ’ 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 (17)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류, 리	라, 래, 로, 퇴,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의존 명사	몇 년, 2002 년	몇 리, 그릴 리가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해외-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 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또한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리을’, ‘녀석’ 같은 고유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존 명사일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말이라도 자립 명사로 쓰일 경우와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에 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年度’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연도’가 되고 의존적으로 쓰일 때는 ‘년도’가 된다. ‘신년도, 고랭지’는 ‘신년-도, 고랭-지’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8) 가. 연도별 생산 실적, 회계 연도/회계연도
 나. 2000 년도/2000년도, 2000 년대/2000년대
 다. 신년-도, 구년-도, 고랭-지

‘란/난’, ‘량/양’의 경우에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란’,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난’, ‘양’이 된다.

- (19) 가. 가정란, 투고란, 독자란, 학습란, 답란
 나.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gossip欄)
- (20) 가. 노동량, 작업량
 나. 일양, 알칼리양(alkali量)

한편 ‘을/률’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을’이 되고 그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이 된다.

- (21) 가.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나.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
 다. 법률(法律), 능률, 출석률

사이시옷 규정 또한 소리와 관계가 있다. 사이시옷은 발음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발음을 모르는 일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 (22) ㄱ. 시냇가, 찻잔, 나뭇잎, 뒷마루
 ㄴ. 기댓값, 대폿값, 만뚝국, 등곶길, 성곶길, 장밋빛, 맥줏집
 ㄷ.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ㄹ.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이나 모음 앞에 ‘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 한자어’나 ‘외래어+ 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시냇가[-까], 찻잔[-잔], 나뭇잎[-문뎀], 뒷마루[-뒀마루]’ 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렇지만 ‘내과(內科), 화병(火病)’ 등은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기댓값, 만뚝국, 장밋빛’ 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한다.

‘한자어+ 한자어’ 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23) ㄱ. 머리말/*머릿말, 인사말/*인삿말
 ㄴ. 핑크빛, 피자집

위에서 ‘머리말’이 옳은 것은 [머린말]로 소리 나지 않고 [머리말]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인사말’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한자어’ 구성일 때와 마찬가지로 ‘핑크빛, 피자집’처럼 외래어가 들어간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원에 따라서 표기를 정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넓- [廣]’과 관련 있는 말은 의미적인 관련이 있으면 ‘넓-’으로, 관련이 적으면 ‘넙-’으로 적는다.

- (24) ㄱ. 강아지가 고기를 넙죽 받아 먹는다.
 ㄴ. 하인이 넙죽 짬을 한다.
 ㄷ. 무를 넙적하게 썰어서 깍두기를 담갔다.
 ㄹ. 넙적다리, 넙따랏다, 넙치[廣魚]

위의 ‘넙죽’은 ‘넙-’과는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졌으므로 ‘넙’으로 적지 않고 ‘넙’으로 적는다. ‘넙적하다’는 의미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넙’으로 적는다.

‘붙이다’와 ‘부치다’도 ‘붙-’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붙이다’로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치다’로 적어서 구분한다. 아래 밑줄 친 ‘올려붙이다, 걷어붙이다, 밀어붙이다’와 ‘숙식을 부치다’는 유의해야 한다.

- (25) ㄱ. 반창고를 붙이다, 주석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ㄴ. 따귀를 올려붙이다, 소매를 건어붙이다, 계획대로 밀어붙이다
- (26) ㄱ. 편지를 부치다, 극비에 부치다, 한글날에 부치다
 ㄴ.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오이소박이’는 ‘오이에 소를 박은 음식’을 말한다. ‘박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박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가 된다. ‘차돌박이’는 ‘흰 차돌이 박혀 있는 듯한 고기의 부위’를 말한다.

- (27) ㄱ. 오이소박이/*오이소백이, 차돌박이/*차돌백이/*차돌배기
 ㄴ. 불박이, 덧니박이, 판박이
- (28) ㄱ. *한 살박이/한 살배기
 ㄴ.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한 살배기’처럼 ‘-배기’가 쓰이는 말들은 ‘박다’와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들이다.

흔히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를 잘못 쓴 말이다. ‘*그리고 나서’와 ‘그리고 나서’는 문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로 분석되는데 ‘-고 나서’ 앞에는 ‘먹고 나서’, ‘쉬고 나서’, ‘일하고 나서’처럼 용언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그리-’는 용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의미가 맞는 ‘그리-’를 찾을 수 없으며 *이리고 나서, *저리고 나서’가 불가능하므로 ‘이, 그, 저’의 계열 관계를 이루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를 잘못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리고 나서, 저리고 나서’와 같이 계열 관계를 이룬다.

- (29) ㄱ.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물을 마셨다.
 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ㄷ. 밥을 먹었다. 그러고는(*그러고는)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또한 ‘*그러나, *그래서’ 등이 불가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러고는’을 잘못 쓴 말이다. 아래의 ‘-대’와 ‘-데’도 문법적인 기준에 따라 서로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 (30) ㄱ. 영희가 그러는데 철수가 결혼한다.
 ㄴ. 철수도 오겠대?

또한 ‘-대’는 아래와 같이 놀라거나 못마땅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31) ㄱ. 왜 이렇게 일이 많대?

ㄴ. 신랑이 어쩔 이렇게 잘 생겼데?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여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32) ㄱ. 두 살배기가 아주 말을 잘하데.

ㄴ. 철수는 아들만 둘이데.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원리

띄어쓰기 원리는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자립성과 의존성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 (1)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 (2)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3) ㄱ. 무얼 보니? 하늘
ㄴ. 어딜 가니? 바다

(3)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 (4)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4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4ㄴ)의 ‘-습니다’는 ‘먹-’에, (4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을 띄어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 (5) ㄱ. 서울에서처럼만
 ㄴ. 좋습니다그려

(5ㄱ)의 ‘에서’, ‘처럼’, ‘만’과 (5ㄴ)의 ‘-습니다’, ‘그려’는 모두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만 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가 바로 그것이다.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말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6)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 (6) 먹을 것(밥)이 없다.

국어에서 의존적인 요소로는 ‘어미, 조사,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에는 의존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띄어쓰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7) ㄱ. 개-
 ㄴ. -었-
 ㄷ. -는구나

위의 ‘개-’는 ‘개살구’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었-’은 ‘먹었다’와 같이, ‘-는구나’는 ‘먹는구나’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띄어쓰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립적인 요소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 (8) ㄱ.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ㄴ. 철수는 말로는 언제나 큰소리만 친다.

(8ㄱ)의 ‘큰 소리’와 (8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것이지만 ‘큰소리’는 소리가 큰 것과는 관계없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 (9) ㄱ. 철수가 시험에 안 됐다.
 ㄴ. 그래서 모두 철수가 안돼 보인다고 했구나.

(9ㄱ)의 ‘안 되다’는 ‘되지 않다’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9ㄴ)의 ‘안되다’는 ‘안스럽다’의 의미다. ‘안’과 ‘되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안 되다’는 띄어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긴 ‘안되다’는 붙여 쓴다.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10) ㄱ. 노루 \vee 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 (11) ㄱ.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돌아(서)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 (12) 서류를 찢어 \vee 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13)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 \vee 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14) ㄱ.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 간다.
 ㄴ.*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서 간다.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14ㄴ)처럼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 (15) ㄱ. 뜻을 이룬다. → 뜻이 이루어진다.
 ㄴ.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한다.

‘뜻이 이루어진다’나 ‘꽃을 예뻐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뜻이 이루어진다’와 ‘꽃을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3. 조사의 띄어쓰기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룬다. 그렇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 | |
|-----------------|----------|
| (16) 겹침 : 집에서처럼 | 학교에서만이라도 |
| 여기서부터입니다 | 너마저도 |
| 어미: 나가면서까지도 | 들어가기는커녕 |
| 갈게요 | “알았다.”라고 |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 (17) ㄱ.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너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너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서술어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 (18)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많다. ‘뿐만’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가 옳다. ‘뿐만’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

- (20) ㄱ. 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

4.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미와 의존 명사는 겉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갖추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1) ㄱ.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21ㄱ)의 ‘-는데’는 하나의 어미이고 (21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가 결합하는 것은 명사류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 (22) ㄱ.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ㄴ. 이 일을 하는 데에…… (결합 가능)

‘학교를 가는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붙여 쓰고 ‘이 일은 하는 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다음도 ‘에’를 상정할 수 있어서 ‘데’를 띄어 쓰는 경우다.

- (23)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ㄴ바’도 두 가지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24)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 없다.

(24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4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 (25)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5)를 ‘도착했는^ㅍ지’로 띄어 쓰는 것은 잘못이고 ‘도착했는지’로 붙여 써야 옳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는지’가 하나의 어미라는 문법적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25)와 (26)이 의미가 같고 띄어쓰기 또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26)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국어의 화자 중에 ‘도착했는가’를 ‘도착했는 가’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했는가’와 ‘도착했는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했는지’로 붙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는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할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할까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면 아래와 같이 ‘ㄴ’과 ‘지’를 띄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28)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28)의 ‘떠난 지’는 문법적으로 관형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로 ‘시간의

경과'를 뜻하며 띄어 쓴다는 점에서 (25)의 '-니지' 구성과는 다르다.

이 둘의 띄어쓰기는 틀리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25)의 '도착했는지'는 '도착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반면 (28)의 '떠난 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는 '간'과 '만'이 있다. '간'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고 '만'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지만 '거리'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지나'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29) ㄱ. 한 달간, 십 년간 (시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 (30) ㄱ. 철수만 오너라. (한정)
 ㄴ. 키가 형만 하다. (비교)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다',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 (31) ㄱ.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ㄴ.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인다.

- (3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하다.
 ㄴ. 음악이 들을만하다/들만하다.

'송아지만'만'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 이때의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송아지만은 하다'와 같이 중간에 보조사가 끼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들을'만하다/들'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

의존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 띄어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르걸'의 띄어쓰기는 '르 것'으로 풀 수 있으나에 따라 달라진다.

- (33) ㄱ. 나중에 후회할걸.
 ㄴ. 후회할 걸 왜 그랬니?

(33ㄱ)의 ‘후회할걸’은 ‘-르걸’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일’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3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할 것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걸’로 띄어 쓴다.

- (34) ㄱ. 사랑을 할 거야(←할 것이야)
ㄴ. 내일 뭐 할 거니(←할 것이니)

이러한 점은 ‘터’가 들어 있는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터인데’, ‘갈 터이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텐데’와 ‘갈 테야’로 띄어 쓴다.

- (35) ㄱ. 비가 와야 할 텐데(←할 터인데)
ㄴ. 나는 집에 갈 테야(←갈 터이야)

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6) ㄱ. 각(各)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부처, 각 지방
ㄴ. 고(故) 홍길동/고인(故人), 귀(貴) 회사/귀사(貴社)
ㄷ. 동(同)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ㄹ. 만(滿) 나이, 만 15세
ㅁ. 매(每) 경기, 매 회계 연도, 별(別) 사이가 아니다.
ㅂ. 연(延) 10만 명, 전(全) 국민
ㅅ. 갖은 양념, 뜯 일, 맨 꼭대기, 뭇 백성, 새 신, 온 식구
ㅇ. 온 사람이 몇 명이나?

(36ㄴ)에서 ‘고 홍길동’과 ‘고인’의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고인’의 경우 ‘인(人)’이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이므로 띄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 회사, 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수 표현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37)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살’과 결합할 때는 ‘스물여섯∨살’로 띄어 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다.

(38) 가. 스물여섯∨살
나. 26∨살(원칙)/26살(허용)

즉 한글로 적는 경우에는 ‘스물여섯∨살’만 가능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경우에는 ‘26살’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아라비아 숫자와 다음의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현실의 직관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6∨살’보다는 ‘26살’로 쓰는 일이 많다.

아래와 같이 ‘제-’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의 띄어쓰기 또한 혼동하는 일이 많다.

(39) 가. 제2∨차 회의(원칙)
나. 제2차 회의 (허용)
다. 제∨2차 회의(잘못)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39가)이 원칙이고 (39나)은 허용된다. (39다)처럼 쓰는 일이 많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다음의 단위 명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전문어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일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 항)”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 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40가)과 (40나)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41)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 항)”라고 되어 있다. 단위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띄어쓰기 직관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42) 가. 성균관∨대학교∨문과∨대학∨부속∨연구소(단어별 띄어쓰기)

나. 성균관대학교∨문과대학∨부속연구소(단위별 띄어쓰기)

(42가)보다 (42나)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서는 위의 (42)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는 고유 명사지만 이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43) 이순신/이충무공, 황보민/황보∨민

사람의 성과 이름은 언제나 붙여 쓴다. 호가 올 경우도 마찬가지다. 띄어 쓸 수 있는 경우는 ‘황보민’과 같이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¹⁾

김 문 오(국립국어원 연구사)

한국어의 어휘의 의미 관계를 알면 한국어 어휘를 조감하고 한국어 어휘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한국어의 어휘의 의미 관계는 크게 계열 관계, 결합 관계, 복합 관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중 ‘계열 관계’는 어휘소(語彙素, 의미를 지닌 기본 단위, lexeme)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choice relation)를 가리키고 ‘결합 관계’는 어휘소가 횡적으로 연결되는 관계(chain relation)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복합 관계’는 하나의 형태나 표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관계를 가리킨다.

첫째, ‘계열 관계’에서는 ‘동의어(유의어), 상하위어, 대립어’를 그 하위 유형으로 살펴볼 것이며, 둘째, ‘결합 관계’에서는 ‘대등 합성어, 혼성어, 관용어, 연어’를 그 하위 유형으로 살펴볼 것이며, ‘복합 관계’에서는 ‘다의어, 동음어’를 그 하위 유형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계열 관계
 - 1.1. 동의어
 - 1.2. 상하위어
 - 1.3. 대립어
2. 결합 관계
 - 2.1. 대등 합성어
 - 2.2. 혼성어
 - 2.3. 관용어
 - 2.4. 연어
3. 복합 관계
 - 3.1. 다의어(多義語)
 - 3.2. 동음어(同音語)
 - 3.3. 중의성(重義性)

1. 계열 관계: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

1.1. 동의어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닐 때 동의 관계가 성립하며, 동의 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을 동의어(synonym)라고 한다.(예: ‘아버지 : 부친’, ‘뉘시찌 : 동동이’, ‘메아리 : 산울림’, ‘보조개 :

1)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국어 의미론』(임지룡 저. 탐출판사. 1992: 135-244)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히며, 저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불우물’, ‘둔치 : 강택’, ‘즐겁다 : 기쁘다’ 등)

과학 분야와 같은 전문 용어의 경우(예: ‘중탄산칼슘=탄산수소칼슘’, ‘중탄산나트륨=산성탄산나트륨=중탄산소다)에는 대상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고 감정 가치에서도 중립적이므로 언제든지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절대적 동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 의미, 어감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완전히 교체될 수 있는 동의어는 거의 없어 상대적 동의 관계에 있는 말이 훨씬 많다(예: 요즘은 너무 바빠 시집 한 권 읽을 {틈/겨를}이 없다. 문의 {틈/겨를}에 옷자락이 끼었다. 이산가족 찾기는 사회에 큰 {반향/*메아리}을 불러 일으켰다. ‘소금:염화나트륨’, ‘양젓물:수산화나트륨’, ‘네덜란드:화란:홀랜드’, ‘대한민국:한국:코리아’)

그래서 동의어를 유의어(類義語, 비슷한 말)로 고쳐서 부르자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예)

- ① ‘깨끗하다 : 맑다’. ‘옷이 깨끗하다’↔‘옷이 더럽다’, ‘*옷이 맑다’, ‘시야가 맑다’↔‘시야가 흐리다’,
- ② ‘기쁘다(주관적, 안에서 우리나라서 밖으로↔슬프다), 즐겁다(중립적, 밖에서 보거나 듣고 내면으로↔괴롭다)’. {기쁘다/^(?)즐겁다} 구주 오셨네. {즐거운/^(?)기쁜} 여름 방학.
- ③ ‘달리다 : 뛰다’(예: 학교를 향해 줄곧 달렸다/~ 뛰었다, 말이 달린다/ ~ 쫓다, 택시가 달려 온다/^(?)택시가 뛰어 온다, ^(?)물가가 달린다/ 물가가 쫓다)
- ④ ‘다르다 : 틀리다’(철수의 답은 다른 사람의 답과 다르다↔같다, 철수의 답은 틀렸다↔맞다.)
- ⑤ ‘speak : say : tell : talk’, ‘big : large’, ‘hear : listen’, ‘see : watch’ 등
- ⑥ meaning 말이나 행위 등이 표현하는 내용을 말하며,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말. sense는 낱말 또는 어구가 지니는 특정의 「의미」를 말하며, meaning보다 주관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 significance 공공연히 표명하지 않고 배후에 있는 뜻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말의 「의의(意義)」라는 뜻에도 부합되는 말.

1.2. 상하위어

상하 관계는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섭(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포섭하는 쪽을 ‘상위어’, 포섭되는 쪽을 ‘하위어’라 한다. 상하 관계에서는 더 특수한 의미를 지닌 어휘소가 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소에 포함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어휘소를 ‘상위어’(hyperonym), 특수한 어휘소를 ‘하위어’(hyponym)라고 하며, 하위어와 동위(同位) 관계에 있는 어휘소를 ‘공하위어’(co-hyponym)이라 한다.

동물--1)새--(1)독수리, (2)매, (3)학, (4)기러기, (5)참새, (6)제비, (7)종달새

--2)물고기--(1)잉어, (2)붕어, (3)미꾸라지, (4)넙치, (5)갈치, (6)상어, (7)명태.....

위에서 ‘동물’은 상위어이며 ‘새’나 ‘물고기’는 그 하위어이다. ‘독수리’나 ‘잉어’ 또한 각각 ‘새’, ‘물고기’의 하위어이다. 위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새’는 ‘동물’의 하위어이면서 동시에 ‘독수리’의 상위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하 관계는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곧 ‘동물’과 ‘새 : 물고기’ 사이에는 직접적 상하 관계가 성립되고 ‘동물’과 ‘독수리 : 잉어’ 사이에는 간접적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새’와 ‘물고기’는 ‘동물’의 공하위어이며, 다시 ‘새’는 ‘독수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하위어를 지배하게 된다.

상하 관계는 의미장으로도 실현된다

과일									
사과			배			감		
국광 (품종명)	홍옥 (품종명)	...	참배	돌배	...	단감	홍시

의미장에서 빈자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람	짐승	식물	사람	짐승	식물
raise			기르다, 키우다		
rear	-	grow	(-)	치다/먹이다	가꾸다
			양육하다	사육하다	재배하다

※육성: {기술자/ 체조 선수/ 중소기업}를/을 육성하다.

1.3. 대립어

의미상 공통된 특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매개 변수가 다른 어휘소들 간의 관계를 대립 관계라 한다. 이 경우 한 쌍의 대립어는 의미 특성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성립한다.

의미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는 ‘반대말’, ‘반의어’, ‘상대어’ 등의 술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의미 관계에서 대립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다양한 구조를 고려하여 유개념(generic concept)으로서 ‘대립어’와 종개념(specific concept)으로서 ‘반의 대립어’, ‘상보 대립어’, ‘방향 대립어’, ‘상대 대립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1.3.1. 반의 대립어

반의 대립어, 곧 ‘반의어(antonym)’는 의미 대립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라이온스(Lyons, 1968: 463-464 참조),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 이후로는 대립어의 하위 유형의 하나인 ‘정도 반의어’(gradable antonym)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반의어의 대표적인 보기는 ‘길다/짧다’, ‘쉽다/어렵다’, ‘덥다/춥다’ 등과 같은 형용사 대립어인데,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한쪽의 단언(긍정진술)은 다른 한쪽의 부정을 함의하나, 한쪽의 부정은 다른 한쪽의 단언을 함의하지 않는다.

(예) X는 길다→X는 짧지 않다, X는 길지 않다↯X는 짧다.

2)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어휘 항목을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는다.

(예) X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 중립 지역의 존재는 반의어와 상보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반의어는 정도 부사로 수식될 수 있으며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예) X는 {조금, 꽤, 매우} 길다/짧다. X는 Y보다 더 길다/짧다.

4) 평가 기준이 상대적이다.

(예) ‘X가 길다’라고 했을 때 X가 ‘손가락’인 경우와 ‘강’인 경우를 상정해 보면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길이임을 알 수 있다.

반의 대립어의 하위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척도 반의어: 가치 중립적,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 기준 제시 가능.

(예)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멀다/가깝다, 넓다/좁다, 굵다/가늘다, 두껍다/얇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무겁다/가볍다, 빠르다/느리다, 세다/여리다, 밝다/어둡다

2) 평가 반의어: 화자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음. 한쪽은 긍정적 평가, 다른 한쪽은 부정적 평가를 나타냄.

(예) 좋다/나쁘다, 쉽다/어렵다, 부지런하다/게으르다, 선하다/악하다, 영리하다/우둔하다, 아름답다/추하다, 유능하다/무능하다, 부유하다/가난하다

3) 정감 반의어: 평가 반의어보다 한결 화자 자신의 주관적·개인적 판단에 좌우됨.

(예) 덩다/춥다, 뜨겁다/차갑다, 달다/쓰다, 기쁘다/슬프다, 자랑스럽다/수치스럽다, 상쾌하다/불쾌하다

1.3.2. 상보 대립어

상보 대립어, 곧 상보어(complementary)는 대립 관계에 있는 어떤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대립어를 말한다. 곧 대립 관계의 두 구획에서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 속하게 된다. 상보어의 대표적인 보기는 ‘남성/여성’, ‘미혼자/기혼자’, ‘참/거짓’, ‘삶/죽음’, ‘출석하다/결석하다’, ‘합격하다/불합격하다’, ‘(과녁에) 맞다/뺏나가다’ 등이다.

반의어에 대조되는 상보어의 특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1) 한쪽의 단언(긍정진술)은 다른 한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쪽의 부정 또한 다른 한쪽의 단언을 함의한다.(상호 함의 관계 성립)

(예) 그것은 참이다→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그것은 참이다.

2)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어휘 항목을 동시에 부정하거나 동시에 긍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예) *그것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그것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3) 정도어로서 수식이 불가능하며 비교 표현으로 쓰일 수 없다.

(예) *그것은 {조금, 꽤, 매우} 참이다/거짓이다. *그것은 이것보다 더 참이다/거짓이다.

4) 평가 기준이 절대적이다.

‘남자’와 ‘여자’, ‘살다’와 ‘죽다’의 대립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에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절대적 사항이다. 비록 양성 보유자, 식물 인간 등이 있기는 하지만, 남녀의 구별이나 생사의 문제는 언어적으로 절대적인 특성을 지닌다.

1.3.3. 방향 대립어

방향 대립어(directional opposite)는 맞선 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대립쌍을 말한다. 여기서 방향은 직선을 이루며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잠재적인 경로로 정의된다. 방향 대립어의 전형적인

보기로는 ‘동/서, 남/북, 오른쪽/왼쪽, 앞/뒤, 위/아래’ 등을 들 수 있다.

반향 대립어의 하위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의어(converse):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한 요소의 방향을 다른 요소에 상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두 대상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립어.

(예) 기준점을 축으로: A는 B의 {위; 앞}에 있다.=B는 A의 {아래; 뒤}에 있다.

가계나 혈연을 축으로: X는 Y의 조상이다.=Y는 X의 후손이다.

혈연을 축으로: (XY는 부부인데) X는 Y의 남편이다.

=(XY는 부부인데) Y는 X의 아내이다.

신분을 축으로: X는 Y의 상관이다.=Y는 X의 부하이다.

‘부모/자식’, ‘형/동생’, ‘주인/하인’, ……

‘팔다/사다’, ‘주다/받다’, ‘빌리다/빌려 주다’, ‘가르치다/배우다’

2) 대척어(antipodal): 방향의 양 극단을 나타내는 대립어.

(예) ‘꼭대기/밑바닥’, ‘출발선/결승선’, ‘남극/북극’, ‘시작/끝’, ‘출발하다/도착하다’

그 외 “X에서Y까지”를 대척어가 미치는 범위라고 볼 때, ‘하나/열’, ‘머리/발끝’, ‘요람/무덤’, ‘천당/지옥’, ‘천재/천치’, ‘우등생/낙제생’ 등도 대척어가 된다.

3) 역동어(reversible): 맞선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대립어.

(예) ‘가다/오다’, ‘들어오다/나가다’, ‘오르다/내리다’, ‘올라가다/내려오다’,

‘길어지다/짧아지다’, ‘강해지다/약해지다’, ‘넓어지다/좁아지다’, ‘깊어지다/얕아지다’

‘열다’ 對 ‘(입)다물다; (창문)닫다; (뚜껑)덮다; (방문)잠그다’,

‘벗다’ 對 ‘(모자)쓰다, (옷)입다, (신)신다, (장갑,안경)끼다, (목도리,스카프)두르다’,

‘풀다’ 對 ‘매다, 차다, 드리우다’, ‘빠다’ 對 ‘끼우다, 꽃다, 박다’

‘향상/악화’, ‘발전/퇴보’, ‘전진/후퇴’

4) 대응어(counterpart): 어떤 균일한 표면이나 상태에서 방향이 역전된 대립어.

(예) ‘언덕/구렁’, ‘두둑/고랑’, ‘양각/음각’, ‘볼록거울/오목거울’, ‘외향적/내성적’

1.3.4. 상대 대립어

상대 대립어, 즉 상대어는 성(性, sex)의 구분에 따른 상대되는 짝을 말한다.

(예) ‘아들/딸’,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

‘형/누나’, ‘오빠/언니’, ‘남동생/여동생’, ‘오라비/누이’

한편, ‘남성/여성’(‘남자/여자’)은 1.3.2. ‘상보 대립어’에 해당하며, ‘남편/아내’는 1.3.3. 방향 대립어 중의 ‘역의어’에 해당한다.

역의어 ‘남편/아내’는 ‘X는 Y의 남편이다’는 ‘Y는 X의 아내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반면에 상대어 ‘아들/딸’은 ‘X는 Y의 아들이다’가 ‘Y는 X의 딸이다’로 치환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2. 결합 관계: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

2.1. 대등 합성어

구성 요소 A, B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소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예) ㄱ. 논밭, 오누이, 아버지, 연놈, 암수, 내남(나와 남), 안팎, 앞뒤, 가로세로, 밤낮, 어제오늘, 오늘내일, 내일모레, 여기저기, 이곳저곳, 이쪽저쪽, 이리저리, 이제나저제나, 이럭저럭, 그럭저럭;
 자타, 국내외, 동서남북, 전후, 좌우, 종횡, 작금, 금명간, 조만간, 조석
 ㄴ. 오가다, 높푸르다, 어늱다, 여닫다, 오르내리다;
 인과, 공수, 개폐, 문답, 송수신, 승하차, 부모, 남녀, 갑남을녀, 선남선녀, 견우직녀, 부부, 조손, 부자(父子), 모녀, 형제, 자매, 형제자매, 고부, 숙질, 선후배, 모자(母子), 비복(婢僕)
 ㄷ. 들락날락, 귀락퍼락
 ㄹ. 하나둘, 두셋, 서너 (개), 너댓 (개), 대여섯, 예닐곱, 일여덟(=일고여덟), 열아홉, 훌쩍; 천만번, 천만리, 단복수

연상의 강도가 높은 요소들이 대등 합성어의 생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대등 합성어의 유형은 형태와 의미 면에서 변화를 입지 않았는가 입었는가에 따라 기본꼴과 바뀐꼴로 나누어진다.

어례 \ 유형	꼴 바뀐	뜻 바뀐
논밭	-	-
오누이	+	-
밤낮	-	±
안팎	+	±

- ※ 밤낮: ①‘밤과 낮’. (예) 밤낮으로 일만 하다/ 밤낮을 모르고 책만 읽다
 ②‘늘’. ‘항상’. (예) 밤낮 놀기만 하다/ 밤낮 일만 한다.
 ※ 안팎: ①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 (예) 집 안팎을 청소하다
 ②부부(예)그 집은 안팎이 모두 부지런하다

뜻 바뀐이 일어난 경우는 관용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특히 주목된다.

- 고유어: 밤낮⇒늘, 물불⇒위험, 손발⇒협력자, 앞뒤⇒논리, 피땀⇒노력, 아래위⇒차례, 바지저고리⇒허수아비
 ·한자어: 흑백⇒잘잘못, 장단⇒가락, 광음⇒세월, 내외⇒부부, 춘추⇒나이, 주야⇒늘, 천지⇒사정, 산수⇒풍경, 강산⇒국토, 풍수⇒지관, 모순⇒이치에 어긋남, 옥석⇒진위, 자웅⇒승부, 우열

2.2. 혼성어

혼성어(blend)는 음성적, 의미적으로 관련된 두 언어 형식의 일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새 어휘소를 말한다. 혼성어의 구성은 소리와 뜻의 측면으로 연관된 X(ab)와 Y(cd)의 두 언어 형식에서 X의 한 형태와 Y의 한 형태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ac, ad, bc, bd의 네 경우 모두를 혼성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ac형은 ‘머릿글자말’이라 하고, bd형은 ‘꼬릿글자말’ 이라고 하며, 엄격히 말할 때에는 아래 2)와 같은 ad형, bc형을 ‘혼성어’라고 한다.

- 1) ㄱ. 경성(ab)×부산(cd) = 경부(선) (ac)---머릿글자말
 ㄴ. 신라(ab)×백제(cd) = 나제 (동맹) (bd)---꼬릿글자말
 2) ㄱ. 여수×순천 =여천(공단) (ad)---혼성어
 ㄴ. 대구×마산 =구마(고속도로)(bc)---혼성어

영어에서는 ad형을 혼성어라고 하는데, 예컨대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brunch’는 breakfast의 앞부분과 lunch의 뒷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아침 겸 점심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신조어 ‘아점’은 머릿글자말로서 혼성어와는 구별된다. ‘고구려×백제→여제(동맹)’, ‘식초×고추장→초장’ 따위는 bd형(꼬릿글자말)에 해당하며, ‘라면×떡볶이→라볶이’는 혼성어의 예에 해당한다.

혼성어는 다음과 같은 ‘준말’(abbreviation)과도 구분된다.

- 3) 임진왜란: 임란, 전자계산: 전산, 대한주택공사: 주공, 대한석유공사: 유공, 대한민국: 한국
 한국대학생총연합회: 한총련, 국가정보원: 국정원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찾사,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3)의 ‘임란’, ‘유공’과 같은 준말은 ‘임진왜란’, ‘대한석유공사’와 같은 본디말(본디이름)에서 형태를 줄인 것인데 비하여, 2)의 혼성어는 ‘여천공단’, ‘구마고속도로’에서처럼 처음 명명할 때부터 혼성의 방법으로 출발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혼성어는 구성 요소 XY가 등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준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혼성어의 유형을 의미 측면에서 보면 ‘4) 동의어에 의한 혼성’과 ‘5) 등위어에 의한 혼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의어에 의한 혼성’은 다분히 심리적 경향을 띠는데, 동의어 어형 간의 간섭으로 의식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등위어에 의한 혼성’은 언중(言衆)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즉 기억 부담량을 줄이면서 독특한 표현 효과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생성되는 특색이 있다.

- 4) ㄱ. 계란(鷄卵)×달걀=계달
 ㄴ. 탁주(濁酒)×막배기=탁배기
 ㄷ. 걸인(乞人)×비렁뱅이=걸뱅이
 ㄹ. 거지×비렁뱅이=거렁뱅이
 ㅁ. 뜯부기×무닭[水鷄]=뜯닭(경북 방언)
 ㅂ. 가르치다[教]×가리키다[指]=가르키다

- 5) ㄱ. 유럽×아시아=유라시아
 ㄴ. 코리언×아메리칸(권)=코메리칸(권)
 ㄷ. 코리언×잉글리시=콩글리시
 ㄹ. 짜장면×스파게티=짜파게티
 ㅁ. 짜장면×마카로니=짜짜로니
 ㅂ. 신라×달나라=나당(연합군)
 ㅅ. 드라이진×토닉워터=진토닉
 ㅇ. 스모크(smok)×포그(fog)=스모그(smog)

- ㄱ. 레저(leisure)×스포츠(sports)=레포츠(leports)
- ㄷ. 라이언(lion)×타이거(tiger)=라이거(liger. 수사자와 암호랑의 튀기)
- ㅋ. 타이거(tiger)×라이언(lion)=타이곤(tigon. 수호랑이과 암사자의 튀기)
- ㅌ.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인플레이션(inflation)=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ㅍ. 오피스(office)×호텔(hotel)=오피스텔
- ㅎ. 모터리스트(motorists')×호텔(hotel)=모텔(motel)

2.3. 관용어

관용어(idiom)는 둘 이상의 어휘소가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 관계를 말한다. ‘관용어’를 흔히 ‘관용구’라고도 하는데, 관용어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낱말(=단어)의 범주로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용어는 한 낱말의 의미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낱말의 범주에 집어넣기보다는 구(phrase)로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관용어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용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관용어의 구성은 고정된 표현 형식을 띤다.

1) 동생이 미역국을 먹었다.

위 문장은 ‘미역으로 끓인 국을 먹었다’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관용어로 쓰였을 때에는 ‘실패하다(낙방하다)’라는 제3의 의미를 획득한다.

2) ㄱ. 동생이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ㄴ. 동생이 *뜨거운* 미역국을 먹었다.

 ㄷ. 동생이 *식당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2)와 같이 통사적 변형을 통하여 문장 구조를 확장해 보았을 때, ‘실패하다’라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3) ㄱ. 동생이 *미역*을 먹었다.

 ㄴ. 동생이 *시래깃국*을 먹었다.

 ㄷ. 동생이 미역국을 *끓였다*.

3)과 같이 관용구의 구성 요소인 ‘미역국’이나 ‘먹다’ 대신에 다른 요소로 대치했을 때도 관용어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상에서 볼 때 ‘미역국 먹다’와 같은 관용어는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고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화석형 의미 단위’임을 알 수 있다.

4) ㄱ. 손을 *들다*[항복, 포기],

 ㄴ. 옷을 *벗다*[(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퇴직],

- ㄷ. 등을 돌리다[절교하다] (※결과 행동→원인[보편적 인간 심리])
- ㄹ. 국수를 먹다[결혼하다 (예문): 너 언제 국수 먹여 줄 거니?]
 - (※ 문화에 기반한 결과→원인[지난날 잔치 때면 으레 하던 음식 대접 풍습에서 유래])
- ㄱ. 쪽박을 차다[빌어먹다] (※문화에 기반한 도구 사용→결과)
- ㄴ. 간이 붓다[겉이 없다] (※원인의 희화화, 내적 행동의 내적인 이유)
- ㄷ. 눈을 감다[죽다] (※관찰 가능한 전형적 결과 중의 하나→원인)

관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세대, 지역, 문화권, 풍습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검증한 관용어의 의미 투명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첫째, 불투명형: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예) 시치미를 떼다, 자린고비, 학을 떼다, 용빼는 재주, 아닌 밤중에 홍두깨, 호박씨 까다, 깨가 쏟아지다, 오지랖이 넓다

둘째, 반불투명형: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

(예) 바가지를 긁다, 미역국을 먹다, 개밥에 도토리, 산통을 깨다, 국수 먹(이)다, 비행기 태우다, 파리 날리다, 바람 맞다, 싹이 노랗다, 입이 싸다

셋째, 반투명형: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전체 의미를 한결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예) 무릎을 꿇다, 손을 들다, 손을 씻다, 구름을 잡다, 배가 아프다,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리다, 발이 넓다, 틈이 생기다, 수박 겉핥기, 하늘이 노랗다.

2.4. 연어

연어(collocation)는 상호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이 결합 관계는 앞에서 본 대등합성어, 혼성어, 관용어에서처럼 고정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의 여지가 한층 개방되어 있다.

상호 관련된 어휘소들에서 선택자와 피선택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예측은 다른 쪽 방향보다 더 쉽게 작용한다.

“영공영금 기다”라는 표현에서 ‘영공영금’이란 부사 다음에 ‘기다’라는 서술어가 올 것은 거의 100%의 확률이 기대되지만, ‘기다’라는 서술어 앞에 어떤 부사어가 올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달이 휘영청 밝다”라는 표현에서도 부사 ‘휘영청’ 앞에 주어로 ‘달’(또는 보름달)이 올 것은 거의 100%의 확률이 기대되지만, ‘달’이라는 주어 뒤에 어떤 부사가 올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1) 영수가 {물/우유/커피/술/공기/연탄가스}를 마셨다.

위 예문 1)에서 주어인 ‘영수’에 대해서 서술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마시다’에 관한 주어를 한정하는 것은 더 단순하다. 여기서 ‘마시다’는 선택자가 되고, ‘영수’는 ‘피선택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물을 마셨다’에서의 선택자도 ‘마시다’인데, ‘물’에 대하여 서술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마시다’의 목적어가 액체나 기체인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선택자로서 ‘마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피선택자로 지배하게 된다. 이 경우 ‘마시다’는 주어로 생물을 취하며 목적어로 유동체(액체나 기체)를 취하게 된다. ‘마시다’는 공기(共起, co-occurrence)하는 어휘소와 연어 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이 형성되는데, 연어 제약을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이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만다.

2) (?) 그 소년은 떡을 마신다.

3) ㄱ. (?) 추운 교실에서 아이들이 발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ㄴ. 추운 교실에서 아이들이 발에 털모자를 신고 있다.

4) ㄱ. (?)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신고 들어왔다.

ㄴ.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들어왔다.

3), 4)에서 ㄱ이 어색한 것은 ‘발-쓰다’와 ‘머리-신다’라는 관계가 정상적인 공기 관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3), 4) ㄴ의 경우는 대상이 ‘털모자’와 ‘스타킹’이지만 ‘발-신다’, ‘머리-쓰다’라는 정상적인 공기 관계를 유지하여 적절하다.

5) ㄱ. 아이들도 열을 견딘다/참는다.

ㄴ. 기계도 열을 견딘다/*참는다.

‘인내하다’에 해당하는 ‘견디다’와 ‘참다’를 보면 5) ㄱ과 같이 ‘견디다’는 생물 주어와 무생물 주어에 공기되지만, ‘참다’는 무생물 주어와 공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ㄱ. 문 {틈/사이/*겨를}로 바람이 들어온다.

ㄴ. 놀{틈/사이/겨를}이 없다.

‘틈’과 ‘사이’는 공간과 시간에 두루 공기되지만, ‘겨를’은 시간에만 공기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는 애초에 ‘겨를’은 시간어였으며, ‘틈’과 ‘사이’는 공간어였음을 뜻한다. 그 결과 공간어는 시간어로 전이되었지만, 역으로 시간어는 공간어로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복합 관계

이제까지는 주로 형태와 의미가 1: 1 대응 관계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형태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복합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s: 의미, n(명칭)

(단의어): s-----n

(동의어): s-----n1, n2, n3

(다의어): s1, s2, s3-----n

3.1. 다의어(多義語)

다의 관계는 하나의 어휘소에 유연성을 지닌 둘 이상의 복합적 의미 관계이다. 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휘소를 다의어(polysemic word)라고 한다. 다음의 ‘가다’는 다의어의 예다.

표현 세계는 무한한데 비하여 언어 기호는 유한한데, 만약 표현 세계에 대응하는 무한한 언어 기호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억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가 담당하는 의미 폭이 넓어져 다의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1) 가. 산에 가다/ 빗길을 가다.

나. 군대에 가다./ 시집을 가다./ 인사 발령으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

다.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로 갔다.

라. 오늘 만난 남자에게 무척 호감이 간다./ 전후 사정이 대충 이해가 간다.

마. 너에게 신호가 가면 직접 숯을 해.

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사. 복지 국가로 가는 길

아. 이 차는 전기로만 간다.

자. 옷에 주름이 가다/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

차. 검사 결과는 내일 가서야 나온다.

카. 그 일에는 손이 많이 간다.

타. 좋은 시절도 다 갔다.

파. 시계가 잘 간다.

하. 주먹을 한 방 맞고 완전히 갔다.

거. 그는 성적이 중간은 간다.

너. 전깃불이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더. 억울하게 간 녀를 추모했다.

러. 생선이 맛이 갔다.

머.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버. 동물원에 구경을 가다

서. (도박판에서) 한 판에 10만 원을 갔다.

어. 결심이 결국 사흘도 못 갔다.

2) 가. 손으로 가리키다/ 잡다.(기본 의미: 무엇을 만지거나 잡는 기능을 지닌 신체의 한 부분)

나. 손에 반지를 끼다./ 손뽀아 기다린다(손가락)

다. 손이 부족하다/ 손이 달리다.(일손, 일꾼)

라. 손을 내밀다/ 피다/ 벌리다/ 그 사람의 손을 빌렸다./

조국 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원조; 역량; 힘·노력)

마. 손에 넣다./ 손을 뺏치다/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영향력·권한의 범위, 소유)

- 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나다./놀아나다(수완, 꾀)
- 사. 손을 떼다/끊다/씻다.(교제, 관계)
- 아. 우리 집 며느리는 손이 너무 커.(쌈씀이)
- 자. 손을 쓰다/ 보다/ 놓고 있다(조치, 처방)
- 차. 손이 거칠다/ 손이 맵다.(손버릇, 타격력)
- 카. 손을 타다(절도의 피해)
- 타. 손을 놓치지 마라.(기회, 시기)
- 파. 손을 대다/ 손이 근질근질하다, 손이 운다.(구타; 구타 의사)
- 하. 손이 맑다/ 손이 부끄럽다/ 손이 맞다/ 손을 맞추다(마음)
- 거. 손위/손아래(항렬), 고등어 한 손(두 마리)

다의어의 의미 구조는 의미 변화의 내부 기제인 유사성과 인접성에 따라 대별된다.

3.1.1. 유사 구조

이는 사물이나 개념 사이에 형태, 기능, 속성의 유사로 말미암은 다의어를 말한다.

1) 형태상의 유사성에 따른 다의어

‘목’:

기본 의미: 사람의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는 신체의 잘록한 부분

파생 의미: ㄱ. 자라목; 기린목; 황새목

 ㄴ. 손목; 발목; 팔목

 ㄷ. 병목; 버선목

 ㄹ. 길목; 골목; 다릿목; 건널목

 ㅁ. 물목; 여울목

2) 기능의 유사성에 따른 다의어

‘손’:

기본 의미: 무엇을 만지거나 잡는 기능을 지닌 신체의 한 부분.

파생 의미: ㄱ. 손발이 되다.<조력자>

 ㄴ. 손이 달리다.<일꾼>

 ㄷ. 손을 잡다; 뺨치다; 떼다; 씻다; 끊다.<관계>

 ㄹ. 손이 크다<쌈씀이>

 ㅁ. 손을 쓰다<조치, 처방>

3) 속성의 유사성에 따른 다의어

‘높다’:

기본 의미: 공간상의 속성으로 수직상의 길이가 길다.

파생 의미: ㄱ. 기온; 물가; 연세; 혈압; 학식이 높다.<보통보다 위에 있다>

 ㄴ. 소리가 높다.<소리의 강도가 세다>

 ㄷ. 지위; 인기가 높다.<지위,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

 ㄹ. 가능성이 높다.<일어날 확률이 다른 것보다 많다.>

ㄱ. 코가 높다.<자존심>

이 밖에도 형태, 기능,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도 있다.

3.1.2. 인접 구조

이는 사물이나 개념 사이에 공간 및 시간상의 인접 또는 인과 관계에 따른 다의어를 말한다.

1) 공간의 인접성에 따른 다의어

- ‘가슴’: ㄱ. 가슴을 내밀다.(기본 의미: 흥부)
 ㄴ. 그녀는 가슴이 빈약하다.(파생 의미: 유방)
 ㄷ. 가슴이 나쁘다.(파생 의미: 폐)
 ㄹ. 가슴을 태우다.(파생 의미: 속)

2) 시간의 인접성에 따른 다의어

- ‘아침’: ㄱ. 아침이 밝아 온다.(기본 의미: morning)
 ㄴ. 아침 먹는다.(파생 의미: 아침식사. breakfast)

3) 원인과 결과의 인접성에 따른 다의어

- ‘떨다’: ㄱ. 추위에 떨다(기본 의미: shiver)
 ㄴ. 시험에 떨어질까 봐 떨다.(파생 의미)

3. 2. 동음어(同音語)

동음 관계는 하나의 언어 표현(언어 형식)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되는 복합적인 의미 관계이다. 동음 관계에 있는 어휘소를 동음어(homonym)라고 한다. 동음어는 우연히 형태(소리)만 같을 뿐이지 형태(소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전혀 무관하다.

동음어는 다시 하위 구분하면 ‘완전 동음어’와 ‘유사 동음어’로 나뉜다. ‘완전 동음어’는 소리 뿐만 아니라 글자까지 같고 의미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소리가 같다는 것은 높이, 길이, 세기 등의 초분절음소를 포함한 것이다. ‘유사 동음어’는 소리는 같지만 글자가 다르다든지, 글자는 같지만 소리는 다른 경우를 가리킨다.

1) 완전 동음어의 예

- 가. 고유어-고유어: 때(時)-때(垢), 비(雨)-비(빛자루), 재(灰)-재(嶺), 쓰다(사용하다, 用)-쓰다(모자를 쓰다, 冠)-쓰다(맛이 쓰다, 苦)-쓰다(글씨를 쓰다, 書), 절다(소금기가 배다)-절다(기우뚱거리며 걷다), 빨다(손가락을 ~)-빨다(빨래를 ~), 잠기다(문이 ~, 閉鎖)-잠기다(물에 잠기다, 浸水)
나. 한자어-한자어: 국내(國內)-국내(局內), 기사(技士)-기사(記事)-기사(記寫)-기사(騎士), 사리(私利)-사리(舍利, 석가모니나 성자의 유골)
다. 고유어-한자어: 시내(시냇물)-시내(市內), 철(계절)-철(분별력)-철(鐵),

2) 유사 동음어의 예

가. 절음 법칙에 의한 동음어: 입-잇, 뭍다-뭉다-묵다

나. 연음 법칙·혼음 법칙에 의한 동음어: 반드시-반듯이, 너머-넘어, 부치다-붙이다, 다리다-달이다, 조리다-줄이다, 주리다-줄이다, 시키다-식히다

다. 초분절 음소만 다른 동음어:

①고저: 말-<馬, H>, <斗, M>, <言, L>, 배-<梨, H>, <舟/腹, M>, <倍, L>, 손-<客, H>, <手, M>, <孫, L>

②장단: 눈-<雪, L>, <眼, S>; 발-<簾, L>, <足, S>; 밤-<栗, L>, <夜, S>; 벌-<蜂, L>, <罰, S>

③강세: 우리-<돼지우리, 제1음절 강세>, <‘나’의 복수형 우리, 제2음절 강세>, 울리다-<‘울다’의 사동사(초인종을 울리다), 제1음절 강세>, <어떤 물체가 소리를 내다(천둥이 울리다), 제2음절 강세>

3) 준유사 동음어: 소리도 다르고 글자(형태)도 달라 유사 동음어는 아니지만 그와 공통점이 다소 있는 예

집이<HM>-짚이<LM>, 거름<LH>-걸음<HL>, 노름<LH>-놀음<HL>, 마치다<HLL>-맞히다<LHL>, 아름<LH>-알음<HL>, 어름<LH>-얼음<HL>

동음어는 의미가 다른 말이 동일한 형태(소리)로 나타나므로 의미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동음 충돌’이라고 하는데, 동음 충돌의 해소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음운 변화에 의한 동음 충돌의 해소

시름(憂/角抵)→시름(憂)/ 씨름(角抵)-----경음화

그르다(誤/解)→그르다(誤)/ ㄸ르다(解)-----경음화

바회(輪/巖)→바퀴(輪)/ 바위(巖)-----'ㅎ'의 강화와 'ㅎ'의 탈락

둘째, 형태소 첨가에 의한 동음 충돌의 해소

말(斗/ 櫛)→말(斗)/ 말뚝(櫛)

톱(鋸/ 爪)→톱(鋸)/ 손톱(爪)

느끼다(感/ 慨)→느끼다(感)/ 흐느끼다(慨)

초(燭/ 醋)→양초(燭)/ 식초(醋)

셋째, 대치에 의한 동음 충돌의 해소

구실(役/ 稅)→구실(役)/ 세금(稅)

괴다(醜/ 愛)→괴다(醜)/ 사랑하다(愛)

선물(西瓜/ 賂物)→수박(西瓜)/ 뇌물(賂物)

뉘(山/ 飯)→산(山)/ 메(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 진지(飯)

다의어와 동음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어휘소가 어원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에 두어 왔다.

3. 3. 중의성(重義性)

중의성(ambiguity)은 화자가 제시한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청자가 해석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복합적 의미 관계이다.

- 1) ㄱ. 나는 밤을 좋아한다.(어휘적 중의성: ①night, ②nut)
 - ㄴ. 그는 형과 아우를 찾아 나섰다.(통사적 중의성. ①형과 동행하여 아우를 찾음, ②형과 아우 모두를 찾음)
 - ㄷ. 철수는 영희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통사적 중의성, 비교 대상: ①영희<돈, ②철수가 돈을 좋아하는 정도>영희가 돈을 좋아하는 정도)
 - ㄹ. 한국 축구팀은 후지산을 넘어 만리장성에 올랐다.(상황의미론적{화용적} 중의성, ①글자 그대로의 뜻, ② 일본팀과 중국팀을 이김)

3.3.1. 다의어에 의한 중의성

첫째, 적용의 전의에 따른 중의성

- 1) ㄱ. 손이 크다.(hand; generosity)
 - ㄴ. 손이 거칠다.(hand; blow, strike)
 - ㄷ. 손을 씻었다.(hand, connection)

- 2) 그는 스승의 뒤를 따랐다.(후면에서 걸어가다; 죽음을 따르다; 학문을 계승하다)

- 3) ㄱ. 아기 보러 간다. (구경하다; 돌보다)
 - ㄴ. 집 보러 간다.(구경하다; 지키다)

둘째, 의미의 특수화에 따른 중의성

- 4) ㄱ. 그는 믿음이 돈독하다.(신의; 신앙심)
 - ㄴ. 김동인 연구(인물 김동인에 대한 연구; 김동인의 작품 연구)
 - ㄷ. 상록수(늘푸른나무; 심훈의 작품)

셋째, 의미의 일반화에 따른 중의성

- 5) ㄱ. 박사(박사 학위 소지자; 박식한 사람의 일반 호칭)
 - ㄴ. 선생(교사; 일반인의 경칭)
 - ㄷ. 사모님(스승의 아내; 상급자의 아내)
 - ㄹ. 할아버지 할머니(조부모; 노인)
 - ㅁ. 아저씨 아주머니(숙부모; 중년 남녀의 호칭)

넷째, 비유적인 표현에 따른 중의성

- 6) ㄱ. 눈이 밝다.(시력이 좋다; 감식력·분별력이 뛰어나다)
 - ㄴ. 귀가 얇다.(귓밥이 얇다; 좃대없이 남의 말을 잘 따른다)
 - ㄷ. 코가 높다.(코 높이가 높다; 자존심이 강하다)
 - ㄹ. 입이 짧다.(입 길이가 짧다; 식성이 까다롭다)

ㄱ. 발이 넓다.(발 폭이 넓다; 교제 범위가 넓다)

3.3.2. 동음어에 의한 중의성

- 1) 달이 찾다.(만월이다; 달빛이 차가웠다; 만기가 되었다; 만삭이 되었다)
- 2) 배가 탈 났다.(복통; 선박 고장)
- 3) 거지가 쪽박을 찢다.(발로 찢다; 허리에 찢다)
- 4) 학생들이 총장의 식사 도중에 구호를 외쳤다.(기념사; 음식을 먹음)

언어의 기능을 사회 구성원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 협력하는 수단으로 볼 때 중의성은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의성을 띤 어휘나 문장은 문맥(context)을 통해서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夫妻)가 절[寺]에 가서 부처[如來]에게 절[拜]을 했다.”나 “장[市場]에 가서 장[醬]을 사다 장[糝]에 넣었오.”, “눈[眼]에 눈[雪]이 들어가니 눈물[淚]인지 눈물[雪水]인지 모르겠다.” 등의 예문을 해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바로 문맥의 덕이다.

그리고 형태의 첨가로 의미의 혼란을 방지하는 일이 많다. ‘초’를 ‘양초’와 ‘식초’로 구분한다거나 지명의 광주를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로 구별한다거나 사이시옷 유무로써, ‘고깃배(漁船)’, ‘고기 배(魚腹)’를 구별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언어로 본 한국 문화

조 태 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어휘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어휘>

1. 한국어 어휘의 특징

한국어는 계통적으로 첨가어로서 어간에 어미가 첨가되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철수가, 먹는다). 그리고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파생법과 합성법이 있는데, 파생법은 여기에 접두사(한-, 남-)나 접미사(-하다, -기)를 첨가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며(한겨울, 남동생/사랑하다, 글짓기), 합성법은 두 어기를 결합하여 한 어휘를 만드는 방법이다(결혼+식, 한국+말). 이를 응용하여 같은 접사를 가진 어휘를 같이 학습하거나(한겨울, 한낮, 한가운데/남학생, 남동생, 남학교), 합성법을 응용하면(결혼식, 약혼식, 장례식, 개회식, 졸업식...) 좀 더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는 기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국어에는 유의어(동의어)가 많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기원의 말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값/가격, 집안일/가사, 흰빛/백색, 어른/성인, 올해/금년, 찬물/냉수, 책/도서, 열쇠/키, 공책/노트, 목욕/샤워...).

한국어 어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의 경우 같은 한자가 여러 단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어휘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한자어들은 ‘집’을 뜻하는 ‘가(家)’가 포함된 단어들로 집과 관련된 뜻을 지닌다.

가구(家具), 가문(家門), 가장(家長), 가정(家庭), 가족(家族), 처가(妻家), 친가(親家)

또 다음의 말은 모두 ‘배움’을 뜻하는 ‘학(學)’이 들어 있다.

개학(開學), 방학(放學), 학교(學校), 입학(入學), 학년(學年), 학생(學生), 학원(學園)

또한, 한자어에는 한글 표기는 같으나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가 많다.

부자(富者): 돈이 많은 사람	부자(父子): 아버지와 아들
수도(水道): 물을 보내는 시설	수도(首都):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
시장(市場): 물건을 사고파는 곳	시장(市長): 시를 운영하는 우두머리
신부(神父): 천주교의 성직자	신부(新婦): 혼인을 할 여자

한자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고, 고유어는 원래부터 한국어에 있던 말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말에 많이 사용된다.

하나, 둘, 셋, 넷…
눈, 코, 입, 머리, 가슴, 다리, 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오빠…
돌, 바위, 풀, 꽃, 나무…
위, 아래, 옆, 앞, 뒤…

반면 한자어에는 학문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나 근대화와 함께 들어온 물건들을 가리키는 데 주로 많다.

학문, 과학, 인문, 사회, 역사, 지리, 미술, 음악, 체육…
기차, 비행기, 철도, 안경, 전화, 전선, 전기…

외래어는 점차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양 기원의 외래어는 대체로 특정 분야를 특정 언어가 담당하고 있다.

음악(이탈리아 어):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콘체르토…
의약(독일어): 파스, 알레르기, 비타민, 칼슘, 계놈…
미술, 발레, 예술(프랑스 어): 샬롱, 카페, 콩쿠르, 르네상스, 바로크…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자음이나 모음을 조금씩 바꾸어 뜻이 조금씩 다른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까맣다/꺼멧다, 캄캄하다/킴킴하다…
꼬불꼬불/꾸불꾸불, 꼭/꼭…
깜깜하다/깜깜하다, 바르르/파르르…

이런 말 중에는 모양이나 소리를 본떠 만든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

의성어: 동물 소리-음매, 멍멍, 야옹, 꼬끼오, 삐악삐악, 꿀꿀, 어흥…
사람의 웃음소리-하하, 호호, 킬킬, 킬킬, 깔깔, 까르르…
사람의 울음소리-엉엉, 으앙, 응애응애, 흑흑, 훌쩍훌쩍, 꺽꺽, 끼이끼이…

의태어: 사람의 웃는 모양-방글방글, 방긋방긋, 빙긋, 씩긋, 빙그레…
사람의 우는 모양-훌쩍훌쩍…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발달해 있어 상대에 따라 어휘를 골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아 높여야 할 경우에는 ‘나이’ 대신 ‘연세’를,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나이가 몇이니?(=몇 살이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에게 책을 주었다.
아버지께 책을 드렸다.

또한,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어로 ‘합니다’나 ‘해요’체를 써야 하며,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어에 ‘-시-’를 꼭 넣어야 하고, 조사도 ‘이/가’ 대신 ‘께서’를 써야 한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잡수셨어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셨습니다.

2. 쉬운 우리말

여기서 우리는 자주 틀리는 우리말 어휘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먼저, 가족이나 친척을 나타내는 말,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재미있는 우리말 어휘에 대해, 다음에는 국어 어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높임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 사람들도 자주 틀리는 어휘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2.1. 재미있는 우리말

가족 및 친척을 나타내는 말: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부모님과 어머니의 부모님을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부모님께서는 ‘친’을 붙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외’를 붙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분이 결혼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삼촌’이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삼촌’ 또는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숙모’, ‘외숙모’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 그 남편은 ‘고모부’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 그 남편은 ‘이모부’라고 부른다.

나와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분의 자식은 사촌 관계이다. 나이에 따라 ‘사촌 형,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만약에 나의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에게 ‘조카’가 된다.

동기가 남자와 남자일 때는 ‘형제’를 쓰고, 남자와 여자일 때는 ‘남매’를 쓴다. ‘형제’일 때는 동생이 윗사람을 ‘형’이라고 부르지만 ‘남매’일 때는 동생이 윗사람을 ‘오빠’ 또는 ‘누나’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기가 여자와 여자일 때는 ‘자매’라고 하고, 이때는 동생이 윗사람을 ‘언니’라고 부른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

물건을 셀 때 숫자 다음에 물건을 세는 말을 붙인다. 종이는 ‘한 장, 두 장’과 같이 ‘장’으로 세고,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와 같이 ‘마리’로 센다. 그리고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와 같이

‘그루’로 센다.

이렇게 물건의 낱말을 세는 말 이외에 물건을 묶음으로 세는 말이 있다. 달걀은 열 개를 묶어서 ‘꾸러미’라고 하고, 물고기는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어서 ‘두름’이라고 하고, 마늘이나 배추 100개를 묶어서 ‘접’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징어 스무 마리를 묶어서 ‘축’이라고 하고, 김 100장을 묶어서 ‘툇’이라고 한다.

때를 나타내는 말:

우리말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은 아주 다양하다. ‘오늘’을 중심으로 바로 전날은 ‘어제’, 어제의 전날은 ‘그저께’, 그저께의 전날은 ‘그끄저께’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다음날은 ‘내일’, 내일의 다음날은 ‘모레’, 모레의 다음날은 ‘글피’라고 한다. ‘내일모레(넬모레)’라는 말도 있는데 ‘글피’를 뜻하는 것 같지만 ‘모레’와 같은 말이다.

‘해’도 ‘올해’(‘금년’이라고도 함)를 중심으로 올해의 바로 앞의 해는 ‘작년’ 또는 ‘지난해’, 그 앞의 해는 ‘재작년’ 또는 ‘지지난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를 중심으로 그 다음해는 ‘내년’, 내년의 다음해는 ‘내내년’ 또는 ‘후년’, 그 다음해는 ‘내후년’이라고 한다.

바람을 나타내는 말: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동풍은 ‘셋바람’, 서풍은 ‘하늬바람’, 남풍은 ‘마파람’, 북풍은 ‘된바람’이라고 부르고 ‘높새바람’은 북동풍을 말한다.

그리고 바람의 모양이나 강도, 부는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꽃샘바람’은 봄에 꽃이 필 때 쌀쌀하게 부는 바람을 말하고, ‘소슬바람’은 가을에 쓸쓸한 느낌을 주며 부는 바람, ‘건들바람’은 초겨울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 ‘선들바람’은 가볍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말한다.

눈을 나타내는 말:

눈은 ‘가루눈, 싸라기눈, 진눈깨비, 포슬눈, 함박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루눈’은 말 그대로 가루와 같이 내리는 눈을 말하고, 쌀알 같은 눈은 ‘싸라기눈’,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은 ‘진눈깨비’,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눈은 ‘포슬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은 ‘함박눈’이라고 한다.

비를 나타내는 말: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보고 재미있게 이름을 붙였는데 ‘능개’는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고,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 능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가랑비’는 이슬비보다는 좀 굵지만 소나기나 작달비보다는 가는 비를, ‘작달비’는 굵고 역세게 내리는 비를 가리키며, 갑자기 내리다가 멈추는 비는 ‘소나기’라고 한다. 그리고 해가 날 때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는 ‘여우비’라고 한다.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

아기가 코 고는 소리는 ‘쿨쿨’, 아빠가 코 고는 소리는 ‘쿨쿨’이라고 한다. ‘쿨쿨’과 ‘쿨쿨’은 소리의 크기를 달리 나타내는 말인데,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쿨쿨’은 ‘작은말’, 큰 소리를 나타내는 ‘쿨쿨’은 ‘큰말’이라고 한다. 별빛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날 때와 보석이 눈이 부시게 ‘뽀짝뽀짝’ 빛날 때처럼 빛의 세기가 다를 때 표현하는 말도 있는데, ‘반짝반짝’처럼 여러게 빛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여린말’이라고 하고, ‘뽀짝뽀짝’처럼 세게 빛나는 말은 ‘센말’이라고 한다.

웃는 소리, 웃는 모양: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는 ‘하하, 호호, 킬킬, 킬킬, 까르르’ 등이 있는데 ‘하하’는 주로 남자 어른이 웃는 소리를 ‘호호’는 여자의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킬킬’은 귀신이 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악당이 음흉하게 웃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킬킬’은 재미있지만 그 웃음소리를 참을 때 내는 소리이다. ‘까르르’는 너무 재미있어 자지러지게 굴러갈 듯 웃는 소리이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귀엽게 웃을 때에는 ‘방글방글’, ‘방긱방긱’ 웃는다고 하고, 어른이 그렇게 웃을 때에는 ‘빙그레’ 웃는다고 한다.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을 때에는 ‘생글생글’ 웃는다고 하고, ‘생그레’라는 말도 있는데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을 때 쓰는 말이다. 이 외에도 ‘히죽’과 ‘씩’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히죽’은 만족스러운 듯이 슬쩍 한 번 웃는 모양을 말하고, ‘씩’은 소리 없이 싱겁게 얼핏 한 번 웃는 모양을 말한다.

웃음의 종류:

웃음을 나타내는 말은 웃는 모양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 큰 소리로 시원하게 웃는 웃음은 ‘너털웃음’, 소리 없이 눈으로만 웃는 웃음은 ‘눈웃음’(눈웃음을 치다), 염소처럼 채신머리없이 웃는 웃음은 ‘염소웃음’, 잔잔하게 웃는 웃음은 ‘잔웃음’,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은 ‘함박웃음’이라고 한다.

우는 소리나 우는 모양 :

어른이 울 때는 ‘엉엉’ 운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울 때는 ‘앙앙’ 운다고 한다. 그리고 젖먹이가 울 때는 ‘으앙으앙, 응애응애’ 운다고 하며, ‘꼭꼭’은 숨이 막힐 정도로 우는 소리를, ‘후후’은 설움이 북받쳐 자꾸 숨을 거칠게 쉬며 우는 소리를 말한다.

울음의 종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우는 울음은 ‘떼울음’이라고 하고, 목이 잠긴 채 우는 울음은 ‘목울음’이라고 하고, 겉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우는 울음은 ‘속울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말 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우는 울음은 ‘건성울음, 건울음’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용울음, 황소울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울음’은 갑자기 내는 큰 울음을 말하고 ‘황소울음’은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는 울음을 말한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말:

손을 폈을 때 가장 짧고 굵은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엄지’라고 하는데, 커서 ‘대지’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은 ‘검지’라고 하는데, 집게처럼 쓸 수 있어서 ‘집게손가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손가락은 가운데에 있어서 ‘중지(中指)’, ‘가운데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가장 길어서 ‘장지(長指)’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은 그 손가락으로 한약을 저었다고 해서 ‘약손가락, 약지(藥指)’라고 하며 이름이 없는 손가락이라고 해서 ‘무명지(無名指)’라고도 부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있는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아서 ‘소지(小指)’라고도 부른다.

이를 가리키는 말:

‘이’는 나는 시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갓난아이일 때 이가 나서 6살이나 7살쯤에 빠지고 새로 나는데, 갓난아이 때 난 이를 ‘젓니, 배냇니’라고 하고, 그 후에 나는 이를 ‘간니’라고 한다. 앞에 있는 이는 ‘앞니’,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안쪽에 난 이는 ‘어금니’, 그 사이에 뽀족한 이는 ‘송곳니’라고 한다. 젓니를 제때 빠지 않아 그 위에 덧나는 이는 ‘덧니’이고, 밖으로 나온 앞니는 ‘뺨드렁니’라고 한다. ‘떡니, 대문니’라는 것도 있는데 앞니 가운데 있는 넓직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물과 그 새끼:

동물과 그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닭’의 새끼는 ‘병아리’라고 한다. 그리고 ‘호랑이’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은 ‘개호주’이고, ‘고등어’의 새끼는 ‘고도리’라고 한다.

맛을 나타내는 말:

맛에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이 있으며, 음식이 ‘달다, 시다, 짜다, 쓰다, 맵다’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말 이외에 맛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말들이 많은데, ‘단맛’이 있을 때는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신맛’이 있을 때는 ‘새콤하다, 시큼하다’라고 말하고, ‘짠맛’이 있을 때는 ‘짹짹하다, 짹짹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쓴맛’이 있을 때는 ‘씹새래하다, 씹새래하다’라고 말하고, ‘매운맛’이 있을 때는 ‘매콤하다’라고 말한다.

그릇의 이름:

음식은 모두 같은 그릇에 담는 것 같지만 음식에 따라 담는 그릇의 이름이 다르다. 밥은 ‘주발’이나 ‘공기’에 담는데, ‘주발’은 위가 약간 벌어지고 뚜껑이 있는 반면 ‘공기’는 위가 넓게 벌어지고 밑이 좁다. 국은 ‘사발’이나 ‘탕기’ 또는 ‘대접’에 담는다. 그리고 김치나 깍두기는 ‘보시기’에 담고, 간장이나 고추장은 ‘종지’에 담는다. 이 외에 ‘접시, 개인 접시(앞접시), 반찬 그릇, 컵, 머그(컵), 커피 잔’같이 용도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다르다.

명태의 다른 이름:

우리가 먹는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노가리’는 모두 ‘명태’라는 생선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명태를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라고 하고, 얼리지도 말리지도 않은 것은 ‘생태’라고 한다. 얼려서 말린 누르스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황태’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다.

떡의 종류:

떡은 주로 명절이나 행사 때 먹는 음식인데 떡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설날에 떡국에 넣으려고 만든 둥글고 긴 모양의 떡은 ‘가래떡’이고, 추석에 ‘콩, 밤, 깨’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은 ‘송편’이다.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겉에도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납작한 떡은 ‘절편’이고, 찹쌀로 만들어 겉에 콩고물을 묻힌 떡은 ‘인절미’, 백일이나 돌에 먹는 하얀 떡은 ‘백설기’이고, 가게를 열거나 이사했을 때 다른 집에 돌리는 떡은 ‘시루떡’이라고 한다. 층마다 여러 가지 빛깔을 내어 만든 떡도 있는데 이는 ‘무지개떡’이라고 한다.

김치의 종류: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는 그 종류가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쓰이는 재료나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배추로 담그면 ‘배추김치’, 무로 담그면 ‘무김치’, 총각무로 담그면 ‘총각김치’, 파로 담그면 ‘파김치’이다. 무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 담근 김치는 ‘깍두기’라고 하고,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소금에 절인 통무에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붓고 심심하게 담근 김치를 ‘동치미’라고 한다. 그리고 오이로 담근 김치는 ‘오이소박이’라고 하고, 보통 김치와는 달리 잣, 밤, 배 등 갖가지 재료를 넣어 배추 잎으로 싸 김치는 ‘보쌈김치’라고 한다.

전통 놀이: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 15일)이나 팔월 한가위(추석, 음력 8월 15일)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고무줄놀이’는 주로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가로지르고 노래에 맞추어 줄을 넘으면서 고무줄이 발에 닿지 않게 하거나 고무줄에 다리를 높이 거는 놀이이다.

‘꼬리잡기’는 어린이들이 하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두 편으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늘어서서 맨 앞사람이 상대방의 맨 뒷사람을 붙잡는 방법과 한 명의 술래가 일렬로 늘어난 사람 가운데 맨 뒷사람을 붙잡는 방법이 있다.

‘구슬치기’는 구슬을 가지고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거나 동그랗게 원을 그려 놓고 그곳에 구슬을 넣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구슬을 따먹는 놀이이다.

‘그림자밟기’는 달밤에 술래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는 놀이이다.

‘땅따먹기’는 정한 땅에 각자의 말을 통긴 대로 금을 그어서 땅을 빼앗아 가며 노는 놀이이다.

‘돌치기(비사치기)’는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을 세워 놓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돌을 던져 맞추거나 발로 돌을 차서 맞추어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절기:

‘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일 년을 나눈 것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스물네 개가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춘’,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동’이라고 한다. 봄에는 ‘춘분’, 가을에는 ‘추분’이 있는데 이때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여름에 있는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고 ‘대서’는 큰 더위라는 뜻으로, ‘소서’ 때 무더위가 시작되고 ‘대서’ 때 가장 덥다고 한다. 겨울도 마찬가지로 ‘소한’과 ‘대한’이 있고 ‘대한’은 한 해 중 가장 추운 때이다.

집을 나타내는 말: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은 지붕을 어떤 재료로 이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랐다.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은 ‘초가집’, 기와로 지붕을 올린 집은 ‘기와집’, 기와는 아닌데 기와와 비슷한 얇은 돌 조각으로 지붕을 올린 집은 ‘너와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큰 통나무를 ‘井’ 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 엮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은 ‘귀틀집’이라고 하고, 마룻바닥이 지면보다 높게 되거나 이층으로 지은 집은 ‘다락집’이라고 한다.

현대에 우리가 사는 집을 가리키는 말로는 주거 형태에 따라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이 있고, 형태와 관계없이 집이 자기 집인지 또는 연이나 월 단위로 빌린 집인지에 따라 ‘자택,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다.

2.2. 높임말

내가/제가 → 내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 “내가 도와드릴까요?”에서 ‘내가’는 ‘제가’로 써야 한다.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를 말할 때에는 ‘저’를 쓰고 ‘저’는 뒤에 ‘가’가 붙으면 ‘제가’가 된다. “나도 가고 싶어요.”는 “저도 가고 싶어요.”로, “내가 할게요.”는 “제가 할게요.”로 쓴다.

우리/저희 →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선생님, 저희가 할 일이 없나요? :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에서 ‘우리가’는 ‘저희가’로 써야 한다. 윗사람에게 ‘우리’를 말할 때는 ‘저희’라고 쓴다.

나이/연세, 준수 → 할아버지 나이? 할아버지 연세? :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에서 ‘나이’는 ‘연세’로 써야 한다. 어른의 나이를 묻거나 말할 때에는 ‘연세’나 ‘춘추’를 쓴다.

말/말씀 → 선생님 말? 선생님 말씀? : “탄생각하느라 선생님 말을 못 들었다.”에서 ‘선생님 말’은 ‘선생님 말씀’으로 써야 한다. 윗사람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말을 낮추어 말할 때에도 ‘말씀’을 쓴다.

병/병환 → 할아버지 병은 어떠시니? 할아버지 병환은 어떠시니? : “할아버지 병은 어떠시지?”에서 ‘병’은 ‘병환’으로 써야 한다. 윗사람의 병은 ‘병환’이라고 한다.

생일/생신 → 할아버지 생일? 할아버지 생신? : “할아버지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였다.”에서 ‘생일’은 ‘생신’으로 써야 한다. 윗사람의 생일은 ‘생신’이라고 한다.

식사/진지 → 할아버지 밥 먹어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 “할아버지 밥 먹어요.”에서 ‘밥 먹어요’는 ‘진지 잡수세요’로 써야 한다. 윗사람에게는 ‘밥’을 ‘진지’라고 하고, 윗사람에게 식사를 권하는 인사말은 “진지 잡수세요.”이다.

집/댁 → 외삼촌 집에 갔다? 외삼촌 댁에 갔다? : “외삼촌 집에 갔다.”에서 ‘집’은 ‘댁’으로 써야 한다.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은 ‘댁’이다.

이/께서 → 할아버지가 오신다?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 “할아버지가 오신다.”에서 ‘할아버지가’는 ‘할아버지께서’로 써야 한다. ‘이/가’는 주어에 붙는데, 주어가 윗사람일 때 ‘께서’를 쓴다.

데리다/모시다 →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에서 ‘데리고’는 ‘모시고’로 써야 한다. 동생이나 동물에게는 ‘데리다’를 쓰지만 윗사람한테는 ‘모시다’를 쓴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먹다/잡수시다 → 할아버지 점심 먹으세요? 할아버지 점심 잡수세요? : “할아버지 점심 먹으세요.”에서 ‘먹으세요’는 ‘잡수세요’로 쓴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고 계신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와 같이 윗사람에게는 ‘먹다’ 대신에 ‘잡수다, 잡수시다’를 쓴다.

묻다/여쭙다 → 선생님께 물어 봐야지? 선생님께 여쭙 봐야지? : “선생님께 물어 봐야지.”에서 ‘물어’는 ‘여쭙’로 써야 한다. 윗사람께 말씀을 올리는 경우에는 ‘여쭙다, 여쭙다’를 쓴다.

수고하다 →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 ‘수고하다’는 ‘고생하다’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

요.”라고 하면 윗사람에게 고생하라고 말하는 것이어서 실례가 된다. 그래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있다/계시다 →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에서 ‘있어요’는 ‘계세요’로 써야 한다. ‘있다’를 윗사람에게 쓸 때는 ‘계시다’라고 하며, “할아버지 집에 있으세요?”도 잘못이다.

아프다/편찮다 → 어머니 많이 아프시니?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니? : “어머니 많이 아프시니?”에서 ‘아프시니’는 ‘편찮으시니’로 써야 한다. 윗사람이 아플 때는 ‘편찮다’를 쓴다.

자다/주무시다 → 아버지 자요? 아버지 주무세요? : “아버지 자요?”에서 ‘자요’는 ‘주무세요’로 써야 한다. 윗사람이 잘 때는 ‘주무시다’를 쓴다.

죽다/돌아가다 → 병아리가 죽었어요? 병아리가 돌아가셨어요? : “병아리가 돌아가셨어요.”에서 ‘돌아가셨어요’는 ‘죽었어요’로 써야 한다. ‘돌아가시다’는 윗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이다.

2.3.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가리키다/가르치다 →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집이 우리 집이다.”에서 ‘가르치는’은 ‘가리키는’으로 써야 한다. 일깨워서 알게 하는 것은 ‘가르치다’이고, 직접 알리는 것은 ‘가리키다’이다. “할머니께 길을 가르쳐 주었다.”와 “손으로 친구를 가리켰다.”와 같이 구분하여 써야 한다.

갑절/곱절 → 세 갑절? 세 곱절? : ‘갑절’은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친다는 뜻이고, ‘곱절’은 같은 수량을 몇 번이고 합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 곱절’은 가능하지만 ‘세 갑절’은 잘못 쓰인 것이다. 두 배 많을 때는 “갑절이나 많다.”, “곱절이나 많다.”와 같이 쓸 수 있다.

그을리다/그슬리다 → 햇볕에 그을려서? 햇볕에 그슬려서? : “햇볕에 그슬려서 얼굴이 새까맣다.”에서 ‘그슬려서’는 ‘그을려서’로 써야 한다. 햇볕에 살갓이 검게 되거나 촛불 따위의 검은 연기가 묻는 것은 ‘그을리다’이고, 사람이나 짐승의 털이 불에 닿아 약간 타는 것은 ‘그슬리다’이다.

껍질/껍데기 → 달걀 껍질? 달걀 껍데기? : ‘달걀 껍질’은 ‘달걀 껍데기’로 써야 한다.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가리키는 말은 ‘껍데기’이고,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껍을 싸고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은 ‘껍질’이다. ‘굴 껍데기, 소라 껍데기’와 ‘굴 껍질, 양파 껍질’과 같이 구분하여 쓴다.

꼬리/꽂지 → 참새 꼬리? 참새 꽂지? : ‘참새 꼬리’는 ‘참새 꽂지’로 써야 한다. ‘꼬리’는 네발짐승의 엉덩이 끝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을 말하고, ‘꽂지’는 새의 몸 뒤에 삐죽 내민 깃을 말한다. 강아지한테는 ‘꼬리’가 있지만 참새한테는 ‘꽂지’가 있다.

늘이다/늘리다 → 고무줄을 늘리다? 고무줄을 늘이다? : ‘고무줄을 늘리다’의 ‘늘리다’는 ‘늘이다’로 써야 한다. 힘을 가해서 길어지게 하는 경우에는 ‘늘이다’를 쓰고, 양이나 수를 늘게 하는 경우에는 ‘늘리다’를 쓴다. “옛가락을 늘였다.”와 “공부 시간을 늘렸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다르다/틀리다 →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틀리다? : “동생과 나는 성격이 틀리다.”에서 ‘틀리다’는 ‘다르다’로 써야 한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는 뜻이며,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답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와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다리다/달이다 → 한약을 다리다? 한약을 달이다? : “엄마가 한약을 다려 주셨다.”에서 ‘다려’는 ‘달여’로 써야 한다. ‘다리다’는 옷의 구김을 펴는 것을 말하고, ‘달이다’는 한약이나 간장 따위를 끓여 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옷을 다리다’와 ‘약을 달이다, 간장을 달이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두껍다/두텁다 → 친분이 두껍다? 친분이 두텁다? : “두 분은 친분이 두꺼우시다.”에서 ‘두꺼우시다’는 ‘두터우시다’로 써야 한다. ‘두껍다’는 ‘책이 두껍다, 이불이 두껍다’와 같이 사물의 두께가 보통보다 큰 경우에 쓰고, ‘두텁다’는 ‘신앙이 두텁다, 두터운 교분’과 같이 신앙, 믿음, 인정 등이 굳고 깊은 경우에 쓴다.

떠다/띄다 → 두 줄을 떠다? 두 줄을 띄다? : “두 줄을 띠어 썼다.”에서 ‘띠어’는 ‘띄어’로 써야 한다. ‘허리띠를 떠다, 노기를 떠다’와 같이 두르거나 지니는 경우에는 ‘떠다’를 쓰고, ‘적당히 띄어 앉다’와 같이 공간이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띄다’를 쓴다. 그리고 ‘눈에 띄다, 귀가 번쩍 띄다’와 같이 뜨게 하는 경우에도 ‘띄다’를 쓴다.

로써/로써 → 형으로써? 형으로서? : “형으로써 책임을 다했다.”에서 ‘형으로써’는 ‘형으로서’로 써야 한다.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쓰인다.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마중/배웅 → 전학 가는 친구 마중? 전학 가는 친구 배웅? : “전학 가는 친구를 마중하고 왔다.”에서 ‘마중’은 ‘배웅’으로 써야 한다. 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는 ‘마중’을 쓰고, 떠나는 사람을 보낼 때는 ‘배웅’을 쓴다.

맞히다/맞추다 →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추다? : “퀴즈의 정답을 맞추다.”에서 ‘맞추다’는 ‘맞히다’로 써야 한다. ‘맞히다’에는 ‘적중하다’의 뜻이 있고 ‘맞추다’에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하다’의 뜻이 있다.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맞춰 보라.”와 “답안지와 정답을 맞춰 보았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매다/매다 → 밥을 급히 먹어 목이 매다? 밥을 급히 먹어 목이 메다? : “밥을 급히 먹어 목이 뻐다.”에서 ‘뻐다’는 ‘매다’로 써야 한다. ‘매다’는 ‘끈을 매다, 그네를 매다’와 같이 쓰이고 ‘매다’는 ‘구멍이 매다, 배낭을 매다’와 같이 쓰인다.

먹다/마시다 → 산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먹었다? 산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 “산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먹었다.”에서 ‘먹었다’는 ‘마셨다’로 써야 한다. ‘음료수를 마시다, 국물을 마시다’와 같이 액체를 넘기는 경우 외에 공기나 냄새 따위를 입이나 코로 들이쉬는 경우에도 ‘마시다’를 쓴다.

발견/발명 → 로봇을 발견하다? 로봇을 발명하다? : “심부름하는 로봇을 발견해야지.”에서 ‘발견해야지’는 ‘발명해야지’로 써야 한다.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미처 찾지 못한 사물, 진리 등을 알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이 세상에는 없는, 쓸모 있는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신대륙 발견”과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기계 발명”과 같이 쓴다.

벌이다/벌리다 → 싸움을 벌이다? 싸움을 벌리다? : “친구와 싸움을 벌리다.”에서 ‘벌리다’는 ‘벌이다’로 써야 한다.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는 뜻을 나타내고, ‘벌리다’는 ‘사이를 넓히거나 연다’는 뜻을 나타낸다. ‘줄 간격을 벌리다, 입을 벌리다’와 ‘잔치를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벗겨지다/벗어지다 → 신발이 커서 벗겨지다? 신발이 커서 벗어지다? : “신발이 커서 자꾸 벗겨진다.”에서 ‘벗겨진다’는 ‘벗어진다’로 써야 한다.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떼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벗겨지다’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벗어지다’를 쓴다. “신발이 작아서 잘 안 벗겨진다.”와 “신발이 커서 걸을 때마다 벗어진다.”, “머리가 벗어졌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보전/보존 → 문화재 보전? 문화재 보존? : “문화재 보전에 힘써야겠다.”에서 ‘보전’은 ‘보존’으로 써야 한다. ‘보존’은 그냥 놔두면 망가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전’은 현재의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물 보존’과 ‘영토 보전’과 같이 구분하여 쓴다.

봉우리/봉오리 → 산봉오리? 산봉우리? : ‘산봉오리’는 ‘산봉우리’로 써야 한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이르는 말은 ‘꽃봉오리, 봉오리’이고,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이르는 말은 ‘산봉우리, 봉우리’이다.

부치다/붙이다 → 우표를 부치다? 우표를 붙이다? : “우표를 부쳤다.”에서 ‘부쳤다’는 ‘붙였다’로 써야 한다.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붙이다’를, 그렇지 않으면 ‘부치다’를 쓴다. ‘벽에 포스터를 붙이다, 불을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와 ‘편지를 부치다, 힘에 부치다, 전을 부치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비치다/비추다 → 손전등을 비치다? 손전등을 비추다? : “손전등을 비치 보라.”에서 ‘비치’는 ‘비추어, 비취’로 써야 한다. ‘비추다’는 ‘불을 비추다, 달빛이 방을 비추다’와 같이 쓰이고, ‘비치다’는 ‘빛이 비치다’와 같이 쓰인다.

빨리/일찍 → 학교에 빨리 가다? 학교에 일찍 가다? : “주변이라서 학교에 빨리 가야 해요.”에서 ‘빨리’는 ‘일찍’으로 써야 한다. ‘빨리’는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보다 큰 것이고 ‘일찍’은 어떤 시각이 정해진 시각보다 앞선 것을 말한다.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빨리 달린다.”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왔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식혜/식혜 → 떡이랑 식혜? 떡이랑 식혜? : “떡이랑 식혜를 주셨다.”에서 ‘식혜’는 ‘식혜’로 써야 한다. ‘식혜’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쌀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을 말하고 ‘식혜’는 ‘쌀밥을 엇기름으로 삭혀서 설탕을 넣고 차게 식힌 음료’를 말한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식혜’다.

신다/입다 → 양말을 입다? 양말을 신다? : “양말을 거꾸로 입었어요.”에서 ‘입었어요’는 ‘신었어요’로 써야 한다. 옷을 몸에 걸치는 것은 ‘입다’이고 신발이나 양말 등을 발에 꿰는 것은 ‘신다’이다. ‘옷을 입다’와 ‘신발을 신다, 양말을 신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씩이다/씩히다 → 속을 썩이다? 속을 썩히다? : “진학 문제로 속을 썩히고 있다.”에서 ‘썩히고’는 ‘썩이고’로 써야 한다. ‘썩히다’는 ‘거름을 썩히다, 재능을 썩히다’와 같이 쓰이고 ‘썩이다’는 ‘속을 썩이다’와 같이 쓰인다.

안/못 → 이 문제는 어려워서 안 풀겠어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 “이 문제는 어려워서 안 풀겠어요.”에서 ‘안’은 ‘못’으로 써야 한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못’을 쓰고 하기 싫은 경우에는 ‘안’을 쓴다.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어요.”와 “영화를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알갱이/알맹이 → 모래 알갱이? 모래 알맹이? : ‘모래 알맹이’는 ‘모래 알갱이’로 써야 한다. ‘알갱이’는 곡식, 모래 따위와 같이 작고 동글동글하며 단단한 물질을 말하고 ‘알맹이’는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작은 물질을 말한다. “알맹이만 빼 먹고 껍데기는 버렸어요.”와 “쌀 알갱이 하나도 버리지 마라.”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알은체/아는 체 → 친구가 알은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친구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 “친구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에서 ‘아는 체’는 ‘알은체’로 써야 한다. 서로 보고 인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은체, 알은척’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는 척, 아는 체’라고 한다. “다음에 만나 보라, 알은체나 하나.”와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얇다/열다 → 얇은 분홍색? 열은 분홍색? : ‘얇은 분홍색’은 ‘열은 분홍색’으로 써야 한다. ‘얇다’와 ‘열다’는 깊지 않다는 뜻으로 ‘물이 얇다/열다, 생각이 얇다/열다’와 같이 쓰인다. 그러나 진하지 않다는 뜻일 때는 ‘열은 화장기, 커피를 열게 탔다’와 같이 ‘열다’만 쓴다.

윗옷/웃웃 → 윗옷? 웃웃? : “추우니까 윗옷을 걸치고 가거라.”에서 ‘윗옷’은 ‘웃웃’으로 써야 한다. ‘웃웃’은 ‘겉옷’을 말하고, ‘윗옷’은 ‘상의(上衣)’를 말한다. “더워서 웃웃을 벗었어요.”와 “키가 커

서 바지는 작은데 윗옷은 맞아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이/이빨 → 이빨이 아프다? 이가 아프다? :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에서 ‘이빨’은 ‘이’로 써야 한다. ‘이빨’은 ‘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동물에게 많이 쓰고 사람에게는 ‘이’를 쓴다.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와 “밥을 먹고 꼭 이를 닦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일절/일체 → 일절 먹지 마라? 일체 먹지 마라? : “일체 먹지 마라.”에서 ‘일체’는 ‘일절’로 써야 한다. ‘일절’은 “출입을 일절 금한다.”와 같이 부정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말이고, ‘일체’는 “재산 일체를 사회에 기부했다.”와 같이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다.

잃다/잊다 → 지갑을 잃어버리다? 지갑을 잊어버리다? :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에서 ‘잃어버렸다’는 ‘잃어버렸다’로 써야 한다. ‘잊다’는 ‘기억하다’와 짝을 이루고, ‘잃다’는 ‘찾다’와 짝을 이룬다. “바빠서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할아버지가 찾아 주셨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입/부리/주둥이 → 앵무새 입? 앵무새 부리? 앵무새 주둥이? : ‘앵무새 입’은 ‘앵무새 부리’로 써야 한다.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인데, 새는 ‘부리’라고 하므로 참새나 독수리는 ‘입’이 아니라 ‘부리’로 먹는다고 해야 한다. ‘주둥이’는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사람에게 쓰면 점잖지 않은 표현이라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작다/적다 → 옷이 작다? 옷이 적다? : “옷이 적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에서 ‘적어서’는 ‘작아서’로 써야 한다. 크기를 나타낼 때는 ‘작다’를 쓰고, 양이나 수를 나타낼 때는 ‘적다’를 쓴다. “동생은 나보다 키가 작아요.”와 “숙제가 적어서 일찍 끝났어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장사/장수 → 과일 장사한테 사과를 샀어요? 과일 장수한테 사과를 샀어요? : “과일 장사한테 사과를 샀어요.”에서 ‘장사’는 ‘장수’로 써야 한다. ‘장사’는 파는 행위를 뜻하고, ‘장수’는 파는 사람을 뜻한다. “호떡 장수는 지금 장사하느라 바쁘다.”와 같이 쓴다.

크다/많다 → 고민이 크다? 고민이 많다? : “고민이 얼마나 큰데요.”에서 ‘큰데요’는 ‘많은데요’로 써야 한다. 크기를 나타낼 때는 ‘크다’를 쓰고, 양이나 수를 나타낼 때는 ‘많다’를 쓴다. “키가 커서 맨 끝자리에 앉아요.”와 “착해서 친구가 많아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큰소리/큰 소리 → 큰소리로 떠들지 마라?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 “큰소리로 떠들지 마라.”에서 ‘큰소리’는 ‘큰 소리’로 써야 한다. ‘큰소리’는 ‘야단치는 소리, 과장하여 떠드는 소리’를 말하고, 소리가 큰 경우에는 ‘큰 소리’로 쓴다. “너, 큰소리가 나야 말을 들겠니?”, “문제없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걱정이다.”와 “큰 소리로 발표합니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튀기다/부치다, 지지다 → 김치전을 튀기다? 김치전을 부치다? : “엄마가 맛있는 김치전을 튀겨 주셨다.”에서 ‘튀겨’는 ‘부쳐’로 써야 한다. ‘튀기다’는 끓는 기름에 넣어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하고, ‘부치다’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이나 전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새우를 튀기다’와 ‘빈대떡을 부치다’로 구분하여 쓴다.

파괴/붕괴 → 지진으로 건물이 파괴되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다? : “지진으로 건물이 파괴되었다.”에서 ‘파괴되었다’는 ‘붕괴되었다’로 써야 한다. ‘파괴’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린다는 뜻이고, ‘붕괴’는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뜻이다.

헤어지다/헤어져다 → 옷이 헤어졌다? 옷이 헤어졌다? : “옷이 헤어져서 무릎이 나와요.”에서 ‘헤어져서’는 ‘헤어지다’로 써야 한다. 옷이 낡아서 떨어지는 것은 ‘헤어지다’이고, 모여 있던 사람이 흩어지는 것은 ‘헤어지다’이다. “신발이 헤어져서 물이 샌다.”와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혼동/혼돈 → 할아버지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를 혼동하다? 혼돈하다? : “할아버지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를 혼돈했어요.”에서 ‘혼돈’은 ‘혼동’으로 써야 한다. ‘혼동’은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

는 것을 말하고, ‘혼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혼돈에 빠지다)

홀몸/홀몸 → 홀몸이 아니다? 홀몸이 아니다? : “홀몸이 아니니 몸조심해라.”에서 ‘홀몸’은 ‘홀몸’으로 써야 한다. ‘임신하고 있다’는 뜻으로는 ‘홀몸이 아니다’만 맞다. ‘배우자나 형제가 없다’는 뜻으로는 ‘홀몸, 홀몸’ 다 쓸 수 있다.

환송회/환영회 → 신입생 환송회? 신입생 환영회? : ‘신입생 환송회’는 ‘신입생 환영회’로 써야 한다. ‘환송’은 기쁜 마음으로 보낼 때 쓰는 말이고, ‘환영’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쓰는 말이다. ‘졸업생 환송회’와 ‘신입생 환영회’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외래어, 한국 현대 문화의 거울>

1. 서론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국립국어원 간행)에 실려 있는 총 440,594개의 주표제어에서 외래어는 총 24,019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0,542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그리고 순수 외래어 24,019개 가운데 21,492개(순수 외래어의 89.5%)가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되는 말인 셈이다. 이는 한자어를 제외하여 말한다면 외국어 가운데 영어가 우리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 외래어
표제어 수 (440,594)	111,156	252,278	24,019	36,618	1,323	14,480	720
백분율 (100%)	25.2	57.3	5.4	8.3	0.3	3.3	0.2

그런데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는 말(신어)에서도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신어(408개)와 2003년 신어(656개) 가운데 서구 외래어는 총 398개로 37.4%를 차지하며,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629개로 전체의 59.1%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된다. 최근 들어 영어가 우리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새 외래어의 특성

2.1. 영어 형용사, 동사의 남용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즉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것은 대개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따위처럼 대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동사나 형용사는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에 속하므로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차용하여 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

웰빙(well-being) 「명」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함. ¶그러나 아베다는 단순한 식물성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육체, 정신, 영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웰빙(well-being)**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이다.

스크린 도어(screen door) 「명」 지하철이나 경전철의 선로와 승강장 부분을 고정된 벽(screen)과 문(door)으로 차단하여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한 뒤에야 열차 출입문과 함께 개폐되도록 한 안전 시설. ¶지하철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차가 역 구내로 완전히 진입한 뒤에야 승강장이 개방되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와 알루미늄 전동차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올인(all in) 「명」 포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일.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최근 ‘**올인**’이라는 제목의 실명 소설로 출간됐다.

영어의 동사나 명사(동명사형 포함)는 우리말에서 ‘-하다’나 ‘-되다’를 결합하기만 하면 동사로 쓸 수 있다. ‘트레이드(trade)하다’, ‘리메이크(remake)하다’, ‘컴백(comeback)하다’, ‘스매싱(smashing)하다’와 ‘업그레이드(upgrade)되다’, ‘매치(match)되다’, ‘키퍼(keeping)되다’ 따위가 그러한 예들이다. 이는 우리말에서 ‘일하다’, ‘공부(工夫)하다’ 따위처럼 ‘-하다’나 ‘-되다’가 고유어나 한자어 명사에 결합하여 손쉽게 동사를 만드는 사실에서 유추해 낸 것이다. 영어의 명사(동명사형 포함)는 ‘그룹화(group化)하다’, ‘제로화(zero化)하다’, ‘버블화(bubble化)되다’ 따위처럼 ‘-화(化)’를 결합한 후 거기에 다시 ‘-하다’나 ‘-되다’를 결합하여 동사로 쓰기도 한다.

트레이드(trade) 「명」 프로 팀 사이에서 전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교환하는 일. ¶**트레이드** 조건을 내걸다

리메이크(remake) 「명」 예전에 있던 영화, 음악, 드라마 따위를 새롭게 다시 만들. 이때 전체적인 줄거리나 제목 따위는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요즘의 영화계에서는 예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의 **리메이크**가 유행이다.

컴백(comeback) 「명」 예전의 활동 무대에 다시 돌아옴. ¶연극 무대에 **컴백**을 하다.

스매싱(smashing) 「명」 테니스, 탁구, 배구 따위에서 공을 네트 너머로 세계 내려치는 일. ¶장운창 선수가 상대의 블로킹을 피해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업그레이드(upgrade) 「명」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 ¶컴퓨터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제품 발표 주기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직종 중의 하나이다.

매치(match) 「명」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잘 어울림. ¶가을 분위기와 **매치**가 잘 되도록 옷감의 색깔에 특히 신경을 썼다.

키퍼(keeping) 「명」 어떤 물건을 특정한 곳에 보관하여 두는 일. ¶**키퍼**를 하면 큰 부담 없이 자주 들릴 수 있어 좋다.

그룹화(group化) 「명」 그룹으로 만들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소장 의원들은 친소 관계에 따라 **그룹화**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할 태세이다.

제로화(zero化) 「명」 전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차별된 서비스로 민원 ‘**제로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버블화(bubble化) 「명」 [경] 투자, 생산 따위의 실제 조건과 다르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앞으로 증시가 개방화·국제화됨에 따라 **버블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얼마 전부터는 영어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서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에 속한다. 따라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빌려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영어 형용사에는 ‘컬러풀(colorful)하다’, ‘스마트(smart)하다’, ‘와일드(wild)하다’, ‘로맨틱(romantic)하다’, ‘타이트(tight)하다’, ‘스포티(sporty)하다’, ‘다이내믹(dynamic)하다’ 따위처럼 오래 전부터 쓰인 말이 더러 있긴 하나 ‘슬림(slim)하다’, ‘프레시(fresh)하다’, ‘덴디(dandy)하다’, ‘엑셀런트(excellent)하다’, ‘모던(modern)하다’, ‘미니멀(minimal)하다’, ‘샤프(sharp)하다’, ‘스타일리시(stylish)하다’, ‘앤티크(antique)하다’, ‘쿨(cool)하다’, ‘터프(tough)하다’, ‘트렌디(trendy)하다’, ‘빈티지(vintage)하다’, ‘베이직(basic)하다’, ‘원더풀(wonderful)하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다’, ‘글래머러스(glamorous)하다’, ‘글로벌(global)하다’, ‘내추럴(natural)하다’, ‘보이시(boyish)하다’, ‘비비드(vivid)하다’,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다’, ‘에너제틱(energetic)하다’, ‘클래식(classic)하다’, ‘파워풀(powerful)하다’,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 따위처럼 최근 들어 쓰인 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어 형용사가 특별한 제약 없이 우리말에 들어와 폭넓고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대개 영어 형용사에 ‘-하다’를 덧붙이기만 하면 우리말로 둔갑을 해 버린다.

컬러풀(colorful)하다 「형」=다채롭다.

스마트(smart)하다 「형」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다. 또는 모양이 말쑥하다.

와일드(wild)하다 「형」=거칠다.

로맨틱(romantic)하다 「형」 낭만적인 데가 있다.

타이트(tight)하다 「형」=팽팽하다, 빠듯하다, 밀도 있다.

스포티(sporty)하다 「형」=경쾌하다, 날렵하다.

다이내믹(dynamic)하다 「형」=생동적이다, 역동적이다.

슬림(slim)하다 「형」 가늘고 날씬하다.

프레시(fresh)하다 「형」 신선한 데가 있다.

덴디(dandy)하다 「형」 세련된 데가 있다.

엑셀런트(excellent)하다 「형」 매우 훌륭하다.

모던(modern)하다 「형」 어떤 사물이나 모습이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데가 있다.

미니멀(minimal)하다 「형」 간결하고 단조롭다.

샤프(sharp)하다 「형」 머리가 좋다. 또는 기질, 말, 목소리 따위가 날카롭다.

스타일리시(stylish)하다 「형」 보기에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데가 있다.

앤티크(antique)하다 「형」 보기에 예스러운 데가 있다.

쿨(cool)하다 「형」 보기에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다.

터프(tough)하다 「형」 박력이 있거나 완력이 세다.

트렌디(trendy)하다 「형」 유행을 따르며 현대적인 느낌이 있다.

빈티지(vintage)하다 「형」 옛것으로 품위를 살린 데가 있다.

베이직(basic)하다 「형」 단순해 보이는 데가 있다.

원더풀(wonderful)하다 「형」 경이롭거나 훌륭하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다 「형」 프로다운 데가 있다.

글래머러스(glamorous)하다 「형」 여성의 육체가 풍만하여 성적 매력이 있다.

글로벌(global)하다 「형」 개별 국가의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의 통합체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다.

내추럴(natural)하다 「형」 인위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있다.

보이시(boyish)하다 「형」 소년 같다. 또는 소년과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비드(vivid)하다 「형」 생생하고 활기차다.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다 「형」 감각을 자극할 만하다.

에너제틱(energetic)하다 「형」 원기가 왕성하다.

클래식(classic)하다 「형」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을 따르는 데가 있다.

파워풀(powerful)하다 「형」 강력한 데가 있다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 「형」 최신 유행을 따르는 데가 있다.

특히 ‘스마트(smart)’는 ‘스마트(smart)하다’뿐만 아니라 ‘스마트(smart)’ 그 자체까지도 여러 분야와 계층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신분증, 신용카드, 여권, 전화카드 따위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 신분증’을 가리키는 ‘스마트카드(smart card)’, ‘목표물에 쏜 레이저 광선의 반사를 통하여 유도하는 폭탄’을 가리키는 ‘스마트 폭탄(smart 爆彈)’, ‘냉난방, 조명, 방화 시설을 모두 컴퓨터로 자동화한 건물’을 가리키는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따위처럼 단어나 구의 일부로 ‘스마트(smart)’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따위에 의하여 시황(市況)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회전되는 자금’을 ‘스마트 머니(smart money)’, ‘빛의 투과도나 반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유리’를 ‘스마트유리(smart 琉璃)’, ‘휴대 전화와 개인 휴대 단말기(PDA)의 장점을 합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세대 휴대 전화’를 ‘스마트폰(smart phone)’, ‘시간과 경비를 줄이면서 물건을 사는 일’을 ‘스마트 소비(smart 消費)’ 따위의 ‘스마트(smart)’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에는 ‘스마트(smart)’가 포함된 영어의 단어나 구를 우리말에 들여와 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smart)’를 받아들여 썼다. 그러나 요즘에는 ‘스마트 소비(smart 消費)’처럼 영어를 이용하여 우리 식대로 만들어 쓴 말에서도 ‘스마트(smart)’를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스마트(smart)’를 이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어 형용사 ‘스마트(smart)’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어 형용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롱다리(long--)', ‘숏다리(short--)' 따위의 신조어는 우리말에서 ‘롱(long)하다’, ‘숏/쇼트(short)하다’란 말 자체가 전혀 쓰이지 않는데도 영어 형용사 ‘롱(long)', ‘숏/쇼트(short)’를 그대로 우리말의 형용사처럼 쓴 예이다.

롱다리(long--) 「명」 키가 크거나 상체에 비해 하체가 긴 것.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패션 토크…」의 첫 출연진은 최근 새 앨범을 낸 **롱다리** 가수 김현정과 전천후 입담꾼 주영훈.

숏다리(short--) 「명」 키가 작거나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은 것.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숏다리** 콤플렉스, 고민 끝!

2.2. 한국식 외래어

외래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국어에서 유입되어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외국어에서 유입되어 쓰인 외래어가 아니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를 하여 우리말처럼 조합하여 만들어 낸 자생적인 외래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외래어를 한국식 외래어(대부분은 한국식 영어)라

한다.

‘골인(goal in)’, ‘더치페이(Dutch pay)’, ‘러브호텔(love hotel)’, ‘마이카(may car, 자가용)’, ‘모닝커피(morning coffee)’, ‘백넘버(back number)’, ‘스킨십(skinship)’, ‘아이쇼핑(eye shopping)’, ‘엠티(M.T.←Membership Training)’, ‘올백(all back)’, ‘카센터(car center)’, ‘하이틴(high teen)’ 따위가 오래전부터 쓰여 온 대표적인 한국식 영어의 예이다.

골인(goal in) 「명」 골이나 바스켓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것. 또는 경주에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일.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300미터 남았다.

더치페이(Dutch pay) 「명」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

러브호텔(love hotel) 「명」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히 성(性)을 즐기려고 하는 남녀가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마이카(may car) 「명」 개인 전용 자동차를 달리 이르는 말. ▶▶저마다 차를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다.

모닝커피(morning coffee) 「명」 아침에 마시는 커피. 주로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을 이른다.

백넘버(back number) 「명」 운동선수의 등 뒤에 붙이는 번호. ▶▶**백넘버** 41번 선수.

스킨십(skinship) 「명」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한 애정의 교류.

아이쇼핑(eye shopping) 「명」 물건은 사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일.

엠티(M.T.←Membership Training) 「명」 단체의 구성원이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하여 함께 수련하는 모임. ▶▶우리 과는 주말에 근교로 **엠티**를 간다.

올백(all back) 「명」 가르마를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모두 뒤로 빗어 넘김. 또는 그런 머리 모양. ▶▶청복이 날씬하게 어울리는 30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머리는 깎아 **올백**으로 넘겼다.

카센터(car center) 「명」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업소. ▶▶**카센터**에 자동차를 맡기다.

하이틴(high teen) 「명」 10대 후반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남녀. 주로 17~19세를 이른다.

한국식 영어에는 일본에서 일본어처럼 조합하여 만들어 낸, 자생적인 일본식 영어도 몇몇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본식 영어가 우리말에 다시 차용된 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식 영어인지 일본식 영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리어카(rear car)’, ‘백미러(back mirror)’, ‘올드미스(old miss)’, ‘오토바이(←auto bicycle)’ 따위가 일본식 영어로서 우리말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알려져 있다.

리어카(rear car) 「명」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그는 혜원동에서 **리어카**에다 오징어, 껌, 낱담배, 땅콩을 놓고 노점을 했다.

백미러(back mirror) 「명」 뒤쪽을 보기 위하여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에 붙인 거울.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백미러**로 살펴보았다.

올드미스(old miss) 「명」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처녀. ▶▶대학을 졸업하고 곧 **올드미스** 소리를 들을 만큼 나이 먹었으니 나는 엄마의 젖꼭지에 매달린 젖먹이였다.

오토바이(←auto bicycle) 「명」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식 영어나 일본식 영어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말 오용의 하나로 보아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즉 국적 불명의 말로서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야구 용어의 하나인 ‘포볼(four ball,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을 네 번 던지는 일)’은 한국식 영어나 일본식 영어라는 이유로 ‘볼넷’으로 바꿔 쓰거나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베이스 온 볼(base on balls)’이라는 원어로 대신하려 한 일까지 있었다. ‘핸드폰(hand phone,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도 똑같은 이유로 한자어인 ‘휴대 전화(携帶電話)’로 바꿔 쓰거나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셀룰러폰(cellular phone)’/‘모바일폰(mobile phone)’이라는 원어로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말도 우리말에서 긍정적, 창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에서나마 대두하고 있다.

2.3. 영어 접사의 차용

외래어는 다른 나라 언어(외국어)에서 차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에서 명사와 같은 어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데 반해 접사와 같은 문법 형태를 차용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다. 즉 영어의 ‘홈페이지(home page,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에 개인적인 관심사나 주제를 나름대로 만들어 독특한 화면에 담아서 올린 사이트)’, ‘네티즌(netizen,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따위와 같은 어휘 형태는 차용하기 쉽지만 영어의 ‘-(t)ion’, ‘-ly’ 따위와 같은 문법 형태는 그것만을 따로 차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바보틱하다(--tic--)’, ‘유아틱하다(幼兒tic--)’, ‘시골틱하다(--tic--)’ 따위처럼 고유어나 한자어에 영어 접사 ‘-tic’을 결합한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에로틱하다(erotic--)’, ‘로맨틱하다(romantic--)’ 따위의 말에 유추해서 ‘틱(-tic)’만을 따로 떼 내어 쓴 예이다. 심지어 ‘우아러스하다(優雅rous--)’라는 말이 쓰인 적이 있다. 이 말은 ‘유머러스하다(humorous--)’에 유추해서 ‘러스’를 따로 떼 내어 쓴 예이다. 사실 ‘유머러스하다’의 ‘유머러스’가 명사 ‘유머(humor)’와 접사 ‘-ous’가 결합하여 생성된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유머 + -러스’로 잘못 분석하여 ‘-러스’를 접사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영어 접사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긴 했으나 이들은 임시어나 유행어처럼 쓰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 바보틱하다(--tic--)** 「형」 바보스러운 데가 있다.
- 유아틱하다(幼兒tic--)** 「형」 유치한 데가 있다.
- 시골틱하다(--tic--)** 「형」 촌스러운 데가 있다.
- 에로틱하다(erotic--)** 「형」 성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데가 있다.
- 로맨틱하다(romantic--)** 「형」 낭만적인 데가 있다.
- 우아러스하다(優雅rous--)** 「형」 우아스러운 데가 있다.
- 유머러스하다(humorous--)** 「형」 익살스러우면서 재미가 있다.

최근에는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영어 접사가 우리말에 차용되고 있다. 우선 영어 접사 ‘-ism’, ‘-ist’ 따위를 차용하여 손쉽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쓴다. 즉 ‘귀차니즘(←귀찮다+ -ism)’, ‘네티티즘(←네 탓+ -ism)’: ‘귀차니스트(←귀찮다+ -ist)’, ‘재미니스트(재미+ (n)+ -ist)’ 따위처럼 우리말의 고유어에 영어 접사 ‘-ism’, ‘-ist’ 따위를 결합한 신조어를 생성해 낸다. 여기에서 ‘재미니스트’는 ‘귀차니스트’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로 ‘귀차니스트’를 ‘귀차--니스트’로 잘못 분석하여, 접사로 ‘-ist’가 아닌 ‘-니스트’를 본 데 따른 것이다.

귀차니즘(←귀찮ㅍㅏ-ism) 「명」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는 태도나 사고방식. ¶학창 시절 방학 때면 집 밖으로 나와 본 적이 드물었던 그였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요즘 인터넷상에 새롭게 나돌고 있는 ‘귀차니즘’에 해당된다.

네타티즘(←네 탓+ -ism) 「명」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 ¶이 책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게 바로 이 ‘네타티즘’일 것이다.

귀차니스트(←귀찮ㅍㅏ-ist) 「명」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요 활동 무대는 방안. 으레 이들 곁에는 티브이(TV) 리모컨이나 인터넷·게임을 위한 컴퓨터 마우스가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귀차니스트는 세상과 소통한다.

재미니스트(재미+(n)+-ist) 「명」 주로 재미를 찾는 데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럼 저는 재미니스트 2호 하겠습니다.

2.4. 로마자 두문자어

우리말의 외래어에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각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만을 취하여 형성된 ‘로마자 두문자어(頭文字語, initial word 또는 acronym)’가 많다. ‘로마자 두문자어’란 ‘유엔(U.N./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피시(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 따위와 같은 고유 어구나 전문 어구의 외래어를 ‘유엔(U.N./UN)’, ‘피시(PC)’ 따위로 줄여 쓴 말을 가리킨다.

이러한 로마자 두문자어는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아이티(IT←Information Technology)’, ‘에스엠에스(SMS←Short Message Service)’, ‘피디에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따위처럼 로마자의 자모음대로 읽기도 하고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왓(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따위처럼 음절화하여 읽기도 한다. 드물지만 ‘시디롬(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디램(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따위처럼 일부는 로마자의 자모음대로 읽고 또 다른 일부는 음절화하여 읽는 것도 있다. 그리고 ‘DIY(←Do It Yourself, 자동차, 주택, 가구 따위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수리하여 쓰는 일)’처럼 두 가지로 읽는 로마자 두문자어도 있다. 즉 ‘DIY’는 로마자의 자모음대로 ‘디아이와이’로 읽기도 하고 음절화하여 ‘다이’로 읽기도 하는 것이다.

두문자어의 독법과 관련해 ‘NEIS’는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말이다.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전국 초·중·고등학교, 16개 시·도의 교육청 및 산하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따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교육 정보전산시스템)’의 로마자 두문자어인 ‘NEIS’를 일부에서 자모음대로 ‘엔이아이에스’로 읽은 데 반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음절화하여 ‘나이스 / 네이스’로 읽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도 있다.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명」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지피에스(GPS)] 기술을 적용한 이 서비스는 에스윈의 보안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버튼만 누르면 엘지(LG) 텔레콤의 무선망을 통해 에스윈이 운영하는 종합 지령실로 긴급 통보된다.

아이티(IT←Information Technology) 「명」[통] 정보 통신이나 정보 기술. 『본격적인 아이티(IT) 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기대되는 브로드밴드(고속 인터넷 회선) 보급률에서 한국이 미국을 큰 차로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에스엠에스(SMS←Short Message Service) 「명」[컴] 단문 메시지 서비스. 컴퓨터나 휴대 전화기에서 작성한 메시지나 DB 정보를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이동 전화 보급이 늘면서 문자 정보를 이동 전화기 표시 창에 표시해 주는 ‘간단한 문자 정보 표시 서비스’[에스엠에스(SMS)]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피디에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명」휴대 전화와 같이 휴대가 간편한 통신 정보 기기. 『‘데몰리션 맨’ 등 미래 생활의 단면을 보여 주는 공상 과학 영화에는 흔히 ‘피디에이’로 불리는 개인 정보 단말기가 등장한다.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명」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쓰는 소규모 자영업.

왓(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명」데스크톱 PC용 연계 언어를 호출기나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기(PDA), 휴대 전화 등 이동 단말기용 무선 통신 언어로 자동 변환해 주는 소프트웨어. 『역시 미국 기업인 모토롤라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중국의 보안상 우려도 감안해 설계된 ‘왓(WAP)’ 방식의 휴대 전화 신제품 ‘아콤플리’를 중국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명」[의] 고열, 두통, 인후통, 기침 등 독감 환자들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 2003년 2월 중국 광둥 성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사스(SARS)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 곤란, 저산소증, 엑스선 상의 폐렴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 근육통, 식욕 부진, 피로감, 발진, 설사를 동반할 수 있다.

시디롬(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명」콤팩트디스크에 데이터나 도형 정보를 기록해 둔 읽기 전용의 기억 매체.

디램(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명」기억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는 펄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램. 기억 용량이 큰 램을 필요로 할 때 쓴다.

이들 로마자 두문자어는 기본적으로 말하거나 적을 때 좀 더 간결하고도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문자어가 폭넓게 쓰이는 최근의 경향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로마자 두문자어가 ‘간결화’·‘간편화’를 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자 두문자어가 서구 외래어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각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만을 취하여 형성된 준말이기 때문에 서구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언중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간결성’·‘간편성’만을 내세워 로마자 두문자어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점차 로마자 두문자어가 폭넓게 쓰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로마자 두문자어도 출현하여 쓰이고 있다. 로마자 두문자어는 대개 수식, 한정 관계로 연결된 어구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러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어구(문장에 준하는 어구)에서 형성된 두문자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로마자 두문자어의 남용이라 할 만하다. ‘넘비(NIMBY←Not In My Backyard)’,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던트족[DINT(←Double Income No Time)族]’,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族]’,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族]’, ‘오팔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族]’ 따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명」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쓰레기장을 자기 동네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종의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핼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명」 지역 주민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나 시설 따위를 자신이 속한 지역에 취해 주거나 설치해 주도록 요구하는 일.
- 딤트족[DINT(←Double Income No Time)族]** 「명」 맞벌이를 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늘 바쁘게 사는 부부들. ♣유통 업체는 구매력은 있지만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이들 **딤트족**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쇼핑을 마치도록 매장의 공간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族]** 「명」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젊은 부부들. ♣남자 혼자 벌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싱크족(Single Income No Kids)**’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族]** 「명」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 ♣그 첫째가 ‘자녀 없는 전문 맞벌이 부부’의 영어 약자를 딴 ‘**딩크족**’이다.
- 오팔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族]** 「명」 활동적인 삶을 누리는 나이 든 무리. 또는 그런 사람. ♣**오팔족**은 일본의 경제 캐스터인 니시무라 아키라와 하타 마미코가 펴낸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에 처음 등장한 용어.

2.5. 혼성어(blend-word)

우리말에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로 하여 우리말 식대로 만들어 낸 한국식 외래어(대부분은 한국식 영어)가 적지 않다. 초기에는 대체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재료를 하여 우리말의 의미 구조에 맞추어 두 단어를 차례대로 연결하여 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의 준말 가운데 하나인 ‘혼성어(blend-word · portmanteau word)’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한국식 영어가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혼성어(blend-word · portmanteau word)’란 두 개의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어구에서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혼합하여 만들어 낸 말을 가리킨다. 영어권에서는 ‘스모그(smog←smoke+ fog)’, ‘모텔[motel←motor(ists)+ hotel]’, ‘브런치(brunch←breakfast+ lunch)’, ‘네티즌(netizen←network+ citizen)’ 따위를 전형적인 혼성어의 예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매니(manny←man+ nanny)’, ‘머스(murse←man+ nurse)’, ‘팝페라(popera←pop+ opera)’ 따위와 같은 혼성어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 스모그(smog←smoke+ fog)** 「명」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
- 모텔[motel←motor(ists)+ hotel]** 「명」 자동차 여행자가 숙박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여관.
- 브런치(brunch←breakfast+ lunch)** 「명」 아침을 겸하여 먹는 점심 식사. ♣시간이 흘러 1998년 1월 7일. 쇼츠가 약속한 이날 빌은 에밀리를 **브런치**에 초대했다.
- 네티즌(netizen←network+ citizen)** 「명」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 매니(manny←man+ nanny)** 「명」 남자 가정부. ♣최근 발매된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서는 ‘머스(murse)’, ‘**매니(manny)**’ 등의 신조어가 유행이다. 각각 ‘남자 간호사

(nurse)', '남자 가정부(nanny)'라는 뜻이다.

머스(murse←man+urse) 「명」 남자 간호사. 『최근 발매된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서는 ‘머스(murse)’, ‘매니(manny)’ 등의 신조어가 유행이다. 각각 ‘남자 간호사(nurse)’, ‘남자 가정부(nanny)’라는 뜻이다.

팝페라(popera←pop+opera) 「명」 성악과 팝이 만난 장르. 『‘팝 뮤직’은 더 이상 오페라에서 낯선 용어가 아니다.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인 ‘팝페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러한 혼성의 방식이 우리말에서도 자연스러운 조어법의 하나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넷파이(netpy←net work+ spy)’, ‘댄커스(dancus←dance+ circus)’, ‘디지털(←digital+ cartoon)’, ‘뮤페라(←musical+ opera)’, ‘사이처(cycher←cyber+ teacher)’, ‘샐러던트(saladent←salaried man+ student)’, ‘아나털(anatal←analogue+ digital)’, ‘카파라치(carparazzi←car+ ☹️paparazzi)’, ‘캐포츠(caports←casual+ sports)’, ‘폰페이지[phon(e)page←phone+ homepage]’ 따위와 같은 한국식 영어가 다량으로 생성되어 쓰이고 있는 사실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혼성어 가운데에는 ‘슈터링(shooting←shoot+ centering)’처럼 본래 영어권에서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다가 우리말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도 더러 있고 ‘프리터(freeter←free+ 쉼 Arbeiter)’처럼 일본식 외래어(일본어 식대로 하면 ‘후리타’가 됨)가 우리말에 유입된 말도 더러 있을 수 있다.

넷파이(netpy←net work+ spy) 「명」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빼내는 사람.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기업 기밀과 관련된 자료가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와 ‘스파이’를 합성한 ‘넷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댄커스(dancus←dance+ circus) 「명」 서커스에 버금갈 정도로 난도가 높은 기술로 이루어진 춤. 『댄커스(댄스와 서커스를 조합한 신조어)라는 새 형식을 시도하는 ‘유에프오(UFO)’는 외계 비행 물체가 한국의 한 주유소에 불시착해 외계인과 지구인이 한바탕 댄스파티를 벌인다는 게 줄거리이다.

디지털(←digital+ cartoon) 「명」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손으로 그린 그림을 합성해서 만든 짧은 만화. 『‘디지털’을 아십니까? 다음 카페 ‘샐리네 조조클럽’의 운영자 ‘샐리’가 만들어 낸 이 용어는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와 ‘카툰’의 합성어다.

뮤페라(←musical+ opera) 「명」 뮤지컬과 오페라를 혼합한 음악 장르. 『뮤페라 ‘라보엠’……시대만 현대, 푸치니 오페라 그대로.

사이처(cycher←cyber+ teacher) 「명」 인터넷 학습 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 진도와 내용 등을 점검해 주는 교사.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도 편한 교육 온라인 공간의 새로운 직업 부류에 ‘사이처(cycher)’가 가세했다.

샐러던트(saladent←salaried man+ student) 「명」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사람. 『나 역시 낮에는 시이오(CEO),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 온 만큼 ‘샐러던트’라는 단어가 무척 가슴에 와 닿는다.

아나털(anatal←analogue+ digital) 「명」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중간에 낀 세대. 즉 40대를 이르는 말이다. 『어느 세대라고 할 말이 없겠는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중간에 끼여 딱 막힌 ‘아나털’들의 처진 어깨가 한결 무거워 보인다.

카파라치(carparazzi←car+ ☹️paparazzi) 「명」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몰래 촬영해 이를 신고

하여 보상금을 타내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평소 시내에서 활동하던 **카파라치**들에게 주말에는 이곳이 황금 어장입니다.

캐포츠(caports←casual+sports) 「명」 운동하기에 편하면서도 평상시에 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음. 또는 그런 복장. ¶캐주얼의 실용성과 스포츠의 기능성을 결합한 **캐포츠**(caports) 브랜드도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폰페이지[phon(e)page←phone+homepage] 「명」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휴대 전화로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폰페이지**는 인터넷 이용 기능을 가진 이동 전화 단말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슛터링(shooting←shoot+centering) 「명」 [운] 축구에서 중앙으로 패스하는 척하며 골 쪽을 향하여 공을 차는 일. ¶슛인지 센터링인지 애매한 이른바 **슛터링**도 각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프리터(freeter←free+Arbeter) 「명」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자유직(**프리터**)을 택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이들 혼성어는 몇몇을 제외하면 대개 한국식 영어로서 진짜 영어가 아니다. 영어를 선호하여 마구잡이로 만들어 낸 가짜 영어이다. 따라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때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것보다 순수 고유어나 한자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처럼, 이러한 국적 불명의 한국식 영어를 양산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6. 접두사처럼 쓰이는 로마자 자모

로마자의 몇몇 자모는 우리말에서 접두사처럼 쓰인다. ‘Electronic’, ‘Mobile’을 대신하여 쓰이는 ‘이(E)’, ‘엠(M)’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코머스[E(←Electronic)+commerce]’, ‘이랜서[E(←Electronic)+freelancer]’, ‘이북[E(←Electronic)+book]’, ‘이비즈니스[E(←Electronic)+business]’, ‘이진[E(←Electronic)+magazine]’, ‘이러닝[E(←Electronic)+learning]’, ‘이슈퍼[E(←Electronic)+supermarket]’ 따위와 ‘엠티즌[M(←Mobile)+netizen]’, ‘엠비즈니스[M(←Mobile)+business]’, ‘엠코머스[M(←Mobile)+commerce]’ 따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E)’, ‘엠(M)’이 외래어와 결합하여 손쉽게 새로운 말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국민[E(←Electronic)+國民]’, ‘이기자[E(←Electronic)+記者]’, ‘엠세대[M(←Mobile)+世代]’, ‘엠쪽지[M(←Mobile)+-紙]’ 따위처럼 ‘이(E)’, ‘엠(M)’이 우리말(한자어나 고유어)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생성해 낸다.

이코머스[E(←Electronic)+commerce] 「명」 [경]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삼성 전자는 지난 1일 인터넷 쇼핑물 홈페이지(www.gosamsung.co.kr)를 개장했다. 또 35명 규모의 전담 관리팀인 ‘이(e)-코머스 팀’도 발족했다.

이랜서[E(←Electronic)+freelancer] 「명」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랜서’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최근 보도했다.

이북[E(←Electronic)+book] 「명」 컴퓨터 화면에 떠올려 읽을 수 있게 만든 전자 매체형 책.

이비즈니스[E(←Electronic)+business] 「명」 [컴] 인터넷상에서 전자 상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 ¶실

제로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이(e)비즈니스, 정보 통신 산업, 벤처 투자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진[E(←Electronic)+magazine] 「명」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잡지.

이러닝[E(←Electronic)+learning] 「명」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교육』업계를 중심으로 **이러닝(e-learning)** 전문가를 양성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슈퍼[E(←Electronic)+super market] 「명」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슈퍼. 『이제 정 씨는 무겁거나 부피가 큰 생수나 기저귀 용품은 물론, 저녁 반찬거리 준비까지 이(e)슈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처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

엠티즌[M(←Mobile)+netizen] 「명」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즐기는 네티즌. 『이 학생처럼 휴대폰 게임을 즐기는 **엠(M)티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엠비즈니스[M(←Mobile)+business] 「명」 [경] 엠코머스와 관련된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 따위를 이르는 말. 이(e)비즈니스가 확대된 개념이다. 『에스케이(SK) 관계자는 “**엠(M)비즈니스**는 전방위적인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토대로 현재 오프라인과 피시(PC)를 기반으로 일고 있는 비즈니스 중 모바일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옮긴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엠코머스[M(←Mobile)+commerce] 「명」 [컴] 무선 통신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무선 인터넷에 세계의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전자 상거래가 이코머스(e-commerce)에서 **엠코머스로** 옮겨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국민[E(←Electronic)+國民] 「명」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표는 2003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 서비스의 온라인화이며 정부 격차 없는 이(e)국민 세상을 펼쳐 나아가자는 신미국 혁명 전략이다.

이기자[E(←Electronic)+記者] 「명」 네티즌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토대로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쓰는 사람. 『연예인 특종 ‘**이(e)기자**’.

엠세대[M(←Mobile)+세대] 「명」 모바일 컴퓨팅(mobile computing)을 하는 엔(N)세대. 『엔(n)세대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했더니 어느새 **엠(m)세대**가 출현했다.

엠쪽지[M(←Mobile)+紙] 「명」 [컴] 인터넷 이용자끼리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문자, 그림, 음악, 메시지 따위의 글. 『“답살스런 **엠(M)쪽지**” 보내고 둘만의 해외여행 떠나요~!

이 밖에 ‘엔세대[N(←Network)+세대]’, ‘엔클론[N(←Network)+clone]’ 따위의 ‘엔(N)’, ‘티코머스[T(←Television)+commerce]’의 ‘티(T)’, ‘유코머스[U(←Ubiquitous)+commerce]’의 ‘유(U)’ 따위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로마자로 볼 수 있다. 로마자 ‘엔(N)’, ‘티(T)’, ‘유(U)’ 따위는 각각 ‘Network’, ‘Television’, ‘Ubiquitous’ 따위를 대신하여 쓰이는 말이다.

엔세대[N(←Network)+세대] 「명」 1977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이른다. 『신경 정신과 전문의 이상일 박사는 “단시간 내에 튀고 싶어하는 **엔(N)세대**의 자유분방함과 이율배반적으로 규율에 대한 동경심이 맞아 떨어져 정해진 틀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놀이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엔클론[N(←Network)+clone] 「명」 컴퓨터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는 복제된 개인. 『그 핵심은 ‘엔클론(n-Clone)’. 네트워크(Network)와 복제 인간(Clone)의 합성어인 **엔클론**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복제된 개인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네티즌 각자의 성격과 개성(Personal Identity)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티코머스(T←Television)+commerce 「명」 [통] 텔레비전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양방향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리모컨 조작만으로 상품 주문을 할 수 있고 각종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티코머스**는 컴퓨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코머스(E-Commerce)’, 휴대 전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엠코머스(M-Commerce)’에 반하는 개념으로 티브이(TV)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유코머스(U←Ubiquitous)+commerce 「명」 [경]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따위의 장비들이 상호 간에 자동으로 통신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앞으로는 이코머스를 넘어 ‘**유코머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2.7. 기타

최근에는 ‘오케이(OK)’, ‘헤이(hey)’, ‘하이(hi)’, ‘와우(wow)’, ‘웁스(oops)’ 따위와 같은 영어의 감탄사도 젊은이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아직 외래어로 보기 어렵고 외국어로서 유행어 차원이긴 하나 특기할 만하다.

오케이(OK) 「감」 찬성, 동의, 만사 해결 따위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헤이(hey) 「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하이(hi) 「감」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날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

와우(wow) 「감」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

웁스(oops) 「감」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3. 맺음말

최근 들어 일상 언어생활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반대로 우리말의 쓰임은 그만큼 크게 축소되어 우리 언어생활의 주객(主客)이 전도된 느낌이다. 우리말이 외래어나 외국어에 제자리를 내주고 뒷방마누라 신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밑바닥에는 외국어를 중시하고 우리말인 한국어를 경시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쓰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때 우리말을 체쳐 두고 외국어를 선호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사건 따위의 이름으로 순수 고유어나 한자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즉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때부터 외래어나 외국어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각 지역 한글학교 현황

- 수라바야 토요 한글 학교
- 스마랑 한글 학교
- 파푸아 한글학교
- 반둥 한글학교
- 발리 한국학교
- 밀알 한글학교(땅그랑)
- 밀알 한글학교(찌까랑)
- 자카르타 한글학교

수라바야 토요 한글학교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1987년 8월 17일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 재 인니 수라바야 토요 한글학교

2. 조직 :

재단 -

이사장 -

교장 - 임택선(한인회장 겸임)

3. 재정 조달 : 년 예산 US\$20,000.00. 중

- 재외동포재단 : US\$6,000.00.

- 한인회 보조 : US\$7,000.00.

- 후원단체 보조 : US\$6,000.00.

4. 수업형태 및 과목:

① 수업과목 : 국어, 수학, 국사, 한문, 국악.

② 수업형태 : 주 일회 매주 토요일(09:00-13:00)

5. 행사 : 년 4 - 5 회.

-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 운동회.

- 매년 9월 글짓기 대회.

- 매년 10월 소풍.

- 매년 11월 학예회.

- 매년 12월 한인회 송년행사 국악, 무용 발표회.

6. 사용 교재 : 자카르타 한국인학교 지원교재 및 한국에서 유아,

유치원 교재 자체 구입 사용,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오산후원회 지원 교과서.

2. 교육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가. 현황

- 1) 매년 학생수는 증가 추세이며 또한 학부모님들 열의도 높음.

나. 문제점

- 1) 자체 교육장소가 없으므로 교실 임대료 지출이 많음.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적으로 행동을 못하며 또한 임대학교의 행사에 따라서 교육일정을 맞추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음).
- 2) 매년 교과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함.
- 3) 교육 기자재가 열악함.
- 4) 문화, 예술 교육을 할 수가 없음.
- 5) 자원봉사 하실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들(100% 자원봉사).
- 6) 결론적으로 정부기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함.

다. 개선방안

- 1) 자체 학교 건축을 하기 위해 모금중.
- 2) 교과서 부족분에 대하여 한국 협력단체를 활용중.
- 3) 자매결연 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의중(문화, 예술부분)
* 한국 협력단체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오산시 임.

3. 기타

수라바야지역은 자카르타지역과 달리 한국업체 진출 대기업이 많지가 않다보니 재외동포재단 년 보조금 US\$6,000.과 한해 전교생 100여명이 넘는 학생수에 지원되는 몇십권의 교과서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한인회 자체에서 유관기관에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청하여 토요 한글학교를 운영하기에 해가 갈수록 점점 어려움이 많음.

스마랑 한글학교

1. 한글 현황

가. 설립년도 : 2005년 2월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 스마랑 한글 학교

2. 조직 :

재단 - 스마랑 한인회

이사장 - 한인회 회장

교장 - 김창기

3. 재정 조달 : 각 한인 기업체와 개인적인 찬조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의 보조

4. 수업형태 및 과목 :

① 수업과목 : 한국어, 한국문화와 역사

② 수업형태 : 주 1회, 2시간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점심 식사 제공

2. 교육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가. 현황 : 학생 - 유, 초등부 25명
중, 고등부 25명

교사 - 유, 초등부 4명
중, 고등부 4명

대부분의 교사는 학부모로 구성됨.(무보수 봉사)

나. 문제점 : 짧은 수업 시간.

학생들의 한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 부족
참고 자료의 부족, 재정부족

다. 개선방안 : 수업 시간 연장

전문 교사 영입

현 교사들의 전문화 교육

3. 기타

파푸아 한글학교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2002년 9월 1일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 파푸아 한글학교

2. 조직 :

재단 - 파푸아 한인회

이사장 - 김효성

교장 - 장홍태

3. 재정 조달 : 재단 지원금 및 현지 모금, 수업료

4. 수업형태 및 과목 :

① 수업과목 : 5과목

국어, 한국 역사, 글쓰기, 유치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② 수업형태 : 월~금요일 오전 7:45~오후 4:00 (총 43시간)

5. 행사: 정규 수업 외 각종 명절 행사, 월간 신문 편찬

6. 사용 교재 : 국정 교과서 및 글쓰기 교재

Korean through English (Hollim)

2. 교육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가. 현황 : 학생수 유 4명, 초 6명 중 없음 고 3명 성인 없음 계 13명

나. 문제점 :

다. 개선방안:

3. 기타

반등 한글학교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1991년 10월 21일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 반등 한글학교

2. 조직 :

재단 - 반등 한인회

교장 - 최이섭

3. 재정 조달: 한글학교 찬조금, 동포재단 지원, 인도네시아 대사관 지원.

4. 수업형태 및 과목

① 수업과목 : 국어, 수학

② 수업형태 : 3교시 수업

5. 행사 : 바자회, 한인회 행사, 찬조 출연

6. 사용 교재 : 한국 교과서, 논술 교재

2. 교육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가. 현황 :

나. 문제점 : 자원 봉사자 부족

다. 개선방안 :

3.기타

발리 한국 학교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2000년 2월 1일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발리 한국 학교 (Bali Korean School)

2. 조직:

재단 - 발리 한인 교회 (Yayasan Bina Ilmu)

이사장 - 윤경희

교장 - 김영길

3. 재정 조달: 교회 기금, 이사회 기금, 자모회 기금 등

4. 수업형태 및 과목:

① 수업과목 : 국어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미술, 음악, 체육, 축구 등

② 수업형태 : 연령 및 수준별로 분반하여 국어, 예체능, 간식, 조회 등으로 구성

5. 행사 : 체육 대회, 소풍, 연말 발표회, 야외 수업 등

6. 사용 교재 : 국정 교과서, 유아용 교육 교재 및 도서 등

2. 교육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가. 현황 : 발리 한인 교회 소속 한글학교로서 약 30여명의 한인 자녀 및 한국계 초등학교 어린이와 중등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모회, 이사회 등의 협의기구가 있다.

나. 문제점 : 지역적 특성상 한인들의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여러 교육적 여건상 학생들의 이주가 빈번하여 효과적인 교육의 기대치 향상에 부응할 수 없는 점과 기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관계로 홍보 효과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다. 개선방안 : 한글학교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구로의 발전이 요구됨.

밀알 한글학교 (땅그랑)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2006년 4월 28일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밀알 한글학교 (땅그랑)

2. 조직:

주관 - KOWIN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교장 - 안영란

3. 재정 조달 : KOWIN 후원 및 수업료

4. 수업형태 및 과목:

① 수업과목 : 한글(어린이반), 기초한국어(성인반)

② 수업형태 : 매 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5. 행사 : 연 1회 학예회 및 동화 구연 대회를 할 예정

6. 사용 교재 : 국어 교과서 및 동포재단 지원 교재

2. 교육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가. 현황 : 학생수는 많으나 들락날락하는 인원이 많아서 고정적인 학생수는 거의 20명 정도임. 교사는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은 교민교회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점 : 자체 교육 장소가 없어서 다른 과목을 가르칠 공간과 시간이 없다.
교육 기자재가 부족하다.
문화 예술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

다. 개선방안 : 한국어외의 과목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체 교육 장소가 있으면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화, 예술 교육이 병행되었으면 한다.

밀알 한글학교 (찌까랑)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2006년 12월 1일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밀알 한글학교 (찌까랑)

2. 조직:

주관 - KOWIN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교장 - 안영란

3. 재정 조달: KOWIN 후원 및 수업료

4. 수업형태 및 과목 :

① 수업과목 : 한글 기초 (어린이반),
기초 한국어 (성인반)

② 수업형태 : 매 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간식 제공

5. 행사 : 말하기 대회

6. 사용 교재 : 한국어 입문편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발간)

2. 교육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가. 현황 : 출,결석이 일정치 않다.

나. 문제점 : 실력의 편차가 크다.

다. 개선방안 : 인원수가 적더라도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수업료를 매달 받지 말고 6개월에 1번씩 받는 것이 좋겠다.

다양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카르타 한글학교

1. 학교 현황

가. 설립년도 : 2007년 5월 개교 예정 (현재 수업 진행)

나. 조직구성

1. 학교명: 자카르타 한글학교

2. 조직:

주관 - KOWIN(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교장 - 안영란

3. 재정 조달: KOWIN 및 수업료 (월 10만 루피아)

4. 수업형태 및 과목:

① 수업과목 : 한글, 국어, 한국어, 음악, 고전무용

② 수업형태 : 매 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간식제공

5. 행사 : 연 1회 동요, 동시, 동화 구연 대회를 할 예정

6. 사용 교재 : 한국어 입문편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 (서강대 어학당 발간, 서울대 어학당 발간)

2. 교육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가. 현황 : 교사 인원 - 9명

학생 수 - 유,초등부 16명, 성인반 -2명

매 주 학생 수가 증가 (매주 접수 중)

나. 문제점 :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아동의 연령과 개인별 수준 차이로 인하여
원만한 교실 형성에 다소 어려움이 많다.

다양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든 교구와 시설 미비

다. 개선방안 : 체계적인 한글학교 전반의 환경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참가자 명단

번호	이름	전화 번호	소속
1	안영란	0813-8566-1185	밀알 한글학교 교장
2	현부미	0818-338-057	수라바야 토요한글학교 교감
3	김미성	0818-319-142	수라바야 토요한글학교 교사
4	김성희	0811-398-976	발리 한국학교 교사
5	이승희	0817-359-060	발리 한국학교 교사
6	노현숙	0811-297-887	스마랑 한글학교 교사
7	김혜숙	0812-2864-860	스마랑 한글학교 교사
8	이금숙	0816-1368-200	파푸아 한글학교 교사
9	장홍태	0811-483-293	파푸아 한글학교 교장
10	김화자	0812-2029-048	반둥 한글학교 교감
11	석정윤		반둥 한글학교 교사
12	김인숙		반둥 한글학교 교사
13	손영희	0816-1692-963	밀알 한글학교(땅그랑) 교사
14	김미영		밀알 한글학교(땅그랑) 교사
15	김명화	0818-737-874	밀알 한글학교(땅그랑) 교사
16	김석주	021-9288-7385	밀알 한글학교(찌까랑) 교사
17	한은희		밀알 한글학교(찌까랑) 교사
18	양혜정	0813-8546-4343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
19	강미경	0817-9118-420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
20	천기은	0815-1902-0309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
21	권정란	0815-1379-0678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무
22	이혜진	0817-0037-679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
23	박성혜	0815-1902-0304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
24	유경희	0817-155-864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
25	권영순	0812-9963-055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
26	송삼순	0813-1057-7853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
27	김지은	0813-8614-7775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
28	기경화	0888-3073-399	자카르타
29	최정아	0813-9960-0399	자카르타
30	조은숙	0811-867-294	자카르타
31	봉하신		자카르타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원 참가자 명단

일련 번호	이름	전화번호	소속
1	안영란	0813-8566-1185	KOWIN 인니지회 회장
2	이순재	0812-9118-126	국제부인회 회원
3	정영순	0816-1671-513	미국골프 티칭연합한국협회원
4	채영애	0816-745-834	재인니 한국부인회 회장
5	조명숙	0811-996-206	재인니 한국부인회 고문
6	배정옥	0812-8078-607	PT. AGI/CEO
7	손은희	0813-1027-0465	칼럼니스트
8	이은애	0819-703320	WESLEY 감리교신학대학 학과장
9	한기순	0818-872-422	KISOONHARTO 사장
10	김명지	0818-491-325	월화차문화원 원장
11	서기자	0815-8525-4122	월화차문화원 부원장
12	박성화	0816-789-442	CEO

후원자 명단

일련 번호	이름	전화번호	소속
1	안영란	0813-8566-1185	KOWIN 회장
2	Mee Kim	0811-185-198	CEO
3	박성화	0816-789-442	CEO
4	채영애	0816-745-834	재인니 한국부인회 회장
5	강효정	0815-1902-0231	SOL 한의원 원장
6	조명숙	0811-996-206	재인니 한국부인회 고문
7	배정옥	0812-8078-607	한국관 사장

연수 강사 명단

일련 번호	이름	소속
1	김문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2	조태린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3	김공섭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가자마다대학 한국어과 교수
4	유경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글학교 무용 교사



<안영란 밀알한글학교 교장>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참가자 전체 기념 촬영>

연구책임자: 안 영 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사)

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한국학교 교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인니지회 회장

동남아 한글학교 협의회 부회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밀알한글학교 교장

2007년 제1회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결과 보고서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 3동 827번지

전화: 02-2669-9724 팩스: 02-2669-9787

인쇄일 2007년 5월 18일

발행일 2007년 5월 21일

인 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